

인간사랑 실천한 ‘의료천사’

”940g 우리아기 살려줬어요“



겨울 사랑

— 박노해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에게 겨울이 없다면
무엇으로 따뜻한 포옹이 가능하겠느냐
무엇으로 우리 서로 깊어 질 수 있겠느냐

이 추운 떨림이 없다면
꽃은 무엇으로 피어나고
무슨 기운으로 향기를 낼 수 있겠느냐
나 언 눈 뜨고 그대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

눈보라 치는 겨울밤이 없다면
추위 떠는 자의 시린 마음을 무엇으로 헤아리고
내 언 몸을 녹이는 몇 평의 따뜻한 방을 고마워하고
자기를 벗어버린 희망 하나 커 나을 수 있겠느냐

아아 겨울이 온다
추운 겨울이 온다
떨리는 겨울 사랑이 온다



표지설명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940g의 초극소 저체중으로 태어난 생명을 정상적인 아이로 부모님 품안에 안겨준 소아청소년과 송준환 교수와 류한걸 선생아의 감동적인 인간사랑을 표지에 담았다.

순천향

2021.11+12

Vol. 68 통합의료원보

C O N T E N T S



2



6



8



12



36

2	FEATURE	월드 코로나와 敍事
4	HISTORY	‘서석조SCH플랫폼’
6	LOVE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송준환 교수와 류한걸 선생아 환자
8	DOCTOR	윤종현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12	VISIT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당뇨발 센터’
16	WITH	순천향대 부천병원 정찬희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18	ISSUE	서울병원, 탄수화물 대비 지방 섭취 부족하면 만성콩팥병 발생 위험 증가
20	ISSUE	부천병원, 담도암, ‘담도내시경’으로 조기 진단 세계 최초 입증
22	ISSUE	천안병원, ‘코로나19 중부권 예방접종센터’ 234일의 기록
24	ISSUE	구미병원, 코로나19 방역 의료 거버넌스 구축
26	KNOWLEDGE	대기오염과 아토피 질환
28	KNOWLEDGE	전정편두통
30	KNOWLEDGE	녹내장
32	KNOWLEDGE	다이어트 약, 먹어도 될까요?
34	EQUIPMENT	부천병원 의료장비, 마그네툼 비다 3T
36	ALUMNUS	오혁수 더블유성형외과 원장(순천향대학교 의과대 8기)
38	ESSAY	‘혼행’
40	BOOK	〈숨결이 바람 될 때〉
42	NEWS	

「순천향」 통권68호

발행일 2021년 11월 19일 **발행인** 서유성(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발행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편집위원** 이미중, 배지연, 이상원, 유채민
연락처 02-709-9593 www.schmc.ac.kr **주소**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59 **기획·편집·디자인** 피앤플러스 02-2269-5689 **인쇄** (주)대한프린테크

위드 코로나와 敍事

서사·narrative

자기만의 ‘네러티브 자본’이 필요한 시대

글_최현미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첫날(2021년 11월 1일), 식당과 거리엔 사람이 넘쳐났다. 관람객은 팝콘을 먹으며 심야영화를 봤고, 대학로 극장 앞엔 배우들의 퇴근길 인사를 기다리는 관객들로 가득했다. 프로야구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열린 잠실구장엔 1만2422명이 찾아 코로나19 이후 프로야구 한 경기 최다 관중을 기록했다. 이제 관객 500명 미만의 콘서트도 가능하니, ‘폐창’은 불가능해도 무대에 대한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월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뒤 651일, 거의 2년 만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문화충격의 2년

2년 만에 일상으로 돌아온 듯하지만 그렇지 않다. 코로나19 종식까지 예측할 수 없는 멀고도 먼 길이 남아 있다. 먹는 백신약 등이 나와 코로나19를 넘어선다고 해도 많은 사람이 전망했듯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문화 인류학자 칼레르보 오베르그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문화적·사회적 환경을 접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를 ‘문화충격(culture shock)’이라고 규정했는데, 흥미롭게도 ‘적응의 유전자’를 지닌 사람들은 6개월을 기점으로 적응에 들어간다고 한다. 그리고 1~2년 정도 지나면 이 바뀐 환경에 적응된다. 코로나19라는 충격의 터널에 들어간 지도 2년이니, 우리는 그사이 새 환경에 적응됐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변했다고 할 수 있다. 돌아갈 수 없는 이유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단순히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다. 온라인 공연, 온라인 전시 등 비대면 문화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지만, 정확하게는 진행되던 변화가 코로나19로 인해 시간을 건너뛰어 조금 빨리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시청자들은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익숙해졌고, 드라마와 영화의 장르 구분은 모호해졌으며, 영화를 극장에서만 보던 시대도 막을 내리고 있다. 지난 2년은 건너뛸 수 있는 공백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삶을 산 일상이었다.

그래서 또 다른 의미에서 더 어려운 시간은 지금부터 일 수 있다. 일상이 단계적으로 회복되고 보다 안정적 시간이 오면 지난 2년간의 결과가 한꺼번에 몰려올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년이 ‘공백’인 줄 알았는데 세상은 급변해 우리를 다른 곳으로 데려다 놓은 것이다. 변화에 잘 대응한 사람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던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 시대’보다 더 혼란스럽고, 잔인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이제는 창의적인 자기 철학으로 만드는

자기 이야기 필요

변화에 대한 감각과 자기 성찰이 꼭 필요한 이유다. 매년 다음 해 트렌드를 전망하는 김난도 서울대 교수는 2022년을 전망하며, 이 시대를 이겨나갈 가장 중요한 힘으로 ‘네러티브 자본’, 즉 ‘자기만의 서사(敍事)’를 꼽았다. 창의적으로 자신의 철학과 세계관으로 만드는 자기 이야기를 말한다.

엄청나게 거대한 서사일 필요는 없다. 변화하는 세상을 인지하고, 그 속에서 나의 자리는 어디여야 하는지, 나는 어디를 어떻게 향하고 싶은지를 점검하는 일, 위드 코로나로 진입하는 이 시간은, 바로 자신만의 내러티브는 무엇인지, 자신의 서사는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볼 때다. 

'서석조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 SCH플랫폼'의 재발견

'서석조SCH플랫폼'이 이제 세상에 빛을 발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순천향대병원 순천향대학교 설립자 항설 서석조 박사의 서거 20주기와 탄생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의학 발전의 위대한 업적인 병원·대학·의학연구의 통합 시스템 구현의 토대인 '서석조SCH플랫폼'의 재발견과 이를 기념하고 후학들에게 표상이 되고자 항설박사의 일대기를 연재합니다.



눈을 번쩍 뜨이게 한 제안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동은병원 덕분에 서 박사는 의사로서 큰돈을 벌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 구석은 여전히 허전했다. 그가 미국 시절부터 생각해왔던 이상적인 병원, 메이오 클리닉 같은 병원을 만들어 보겠다는 꿈과는 점점 멀어져가는 기분이 들었다.

무엇보다 좋은 병원이 되려면 연구를 하고 좋은 의사들을 키워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리 규모가 크고 경영이 잘된다고 해도 개인병원 수준에서는 그런 일이 어려웠다.

한 명의 개업의 입장에서 보면 동은병원은 돈을 많이 벌어드주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병원이었지만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의학 연구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제안이 하나 들어왔다. 국내 재벌 기업 총수가 마음먹고 새로운 종합병원을 만드는데 곧 의과대학까지 인수해 의욕적으로 병원을 키워 나갈 계획이라는 얘기였다.

서 박사는 제안을 받고 고민 할 것도 없이 바로 '오케이'를 외쳤다. 이미 40대 중반을 훌쩍 넘은 나이였다. 어렵게 독립해 개업 의로서 자리를 잡으며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과

연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나 서 박사의 생각은 달랐다. 잘 운영되고 있던 동은병원을 미련 없이 정리하고 바로 새로운 병원에 합류했다.

그의 목표는 확고했다. 서 박사는 단지 돈을 많이 버는 성공한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었다. 인술(仁術)로 인간을 이롭게 하고 널리 구제한다는 광제인술(廣濟仁術), 광시육영(廣施育英)이 서 박사의 필생의 목표였고 숙원이었다.

좋은 조건에서 많은 연구를 할 수 있고 후학들을 길러낼 수 있다면 그 길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의자 스프링 누르고 있어라

잘 나가는 동은병원은 제자이자 동료였던 곡초서 박사에게 넘겨주었다. 갑작스럽게 병원을 맡게 된 곡초서 박사는 얼떨떨한 마음에 서 박사에게 병원의 중요한 운영 방침에 대해서 물었다.

“선생님, 제일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일이 뭘니까?”

“의자 스프링을 누르고 있어라.”

환자가 오든 안 오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환자들은 의사가 잠깐 자리를 비우더라도 와서 없으면 언제 왔는데 없었다면서 아쉬워한다. 자신을 보기 위해 멀리서 오는 환자



고려병원 개원 초 스태프들의 사진.
아랫 줄 왼쪽에서 세 번 째가 서석조 박사.

를 위해서라도 항상 자리를 지키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전국의 환자들을 다 불러 모온다는 최고 스타 의사라면 뭔가 대단한 ‘비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 쉬운 것이었다. 그것은 곧 환자와의 신뢰와 진심이었다.

대기업이 투자하는 대형병원의 등장

1968년 11월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새로운 대형병원이 문을 열었다. 서대문에 문을 연 고려병원은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의 후견으로 야심차게 설립된 병원으로 100병상, 12개 진료과 규모로 처음 문을 열었다.

서 박사도 동은병원을 정리하고 고려병원 개원에 동참했다. 고려병원은 기존 병원들보다 엄청나게 좋은 대우로 의사들을 블랙홀처럼 끌어들이었다.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해서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의사들이 이때 고려병원으로 많이 옮겨갔다.

고려병원은 우수한 의료진과 함께 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의료계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서 박사가 고려병원에 합류한 이유는 일찍부터 이병철 회장과 교분을 쌓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큰 동기가 있었다. 삼성그룹이 성균관대학교를 인수해서 의과대학을 신설할 예정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그가 줄곧 꿈꾸어왔던 포부를 이곳에서는 제대로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가슴이 부풀었다.

그러나 서 박사가 고려병원으로 옮기고 난 후 몇 년이 지나도 의과대학을 인수한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었던 모양이다.

휴머니즘과 자본주의의 부딪힘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실력 있는 의사만으로는 부족하다.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연구시설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의과대학이 필수였다. 환자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연구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다보니 바쁘기만 한 개인병원 같았다.

병원만 가지고는 일류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할 수 없다는 생각이 더욱 깊어졌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일류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서 박사의 실망은 점점 커졌다. 그 뿐이 아니었다. 탄탄한 재정과 삼성그룹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연구시설을 하나 신청하면 전부 거절되었다. 무엇을 요청하면 병원 관계자는 먼저 계산기를 두드려서 원가를 계산해보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거절하기 일쑤였다.

직접 개인병원을 운영하면서도 서 박사는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환자를 치료하지 않았다. 그에게 병원은 계산을 하는 곳이 아니었다. 병원은 환자를 잘 치료하는 곳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개인병원을 하면서도 원가를 신경 쓰지 않고 좋은 약을 쓰기 위해 애를 썼는데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병원에서 자본의 논리가 먼저 등장하니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병원 경영을 휴머니즘 관점에서 생각하는 서 박사의 사고방식과 자본주의 논리가 충돌했다. 첨단 설비를 갖춘 현대식종합병원 건설과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 설립, 이 두 가지 꿈을 함께 이룰 때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치료의 손길을 뻗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의학계의 발전을 이끌고 민족과 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즈음 서 박사는 한국 의료계의 현실과 계속 부딪히면서 무척 우울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출신학교별로 뭉치고 끌어주는 학연으로 인한 파벌에 좌절하기도 했고 대학병원에서조차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좌절하고 안타까워했다. 고려병원에서 4년여를 봉직하며 돈도 많이 벌었고 나를 봉사도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 병원 내에서 겪은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해 아마 자신의 목표가 더 뚜렷해 졌는지도 모른다. 이 일은 서 박사에게도 자신만의 새로운 병원에 대한 의지를 더욱 다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940g 내 아기 살려준 고마운 의료진 천사”

신뢰와 믿음으로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를 건강한 아기로

글_전진용 사진_전용철

이제 생후 10개월이 조금 넘는 류한결 아기. 현재는 여느 아기들과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처음 태어날 당시만 해도 누구도 이 아기의 건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엄마와 아빠의 첫 번째 사랑의 결실이기에 이런 시련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임신 7개월부터 몸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찾았더니 임신중독증, 그 중에서도 헬프증후군 징후가 보인다고 하더군요.” 임신 25주차, 병원 입원 나흘부터는 명치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가 떨어져 응급 제왕절개 수술이 시급했다. 이렇게 병원 입원 일주일 만에 수술을 통해 태어난 한결이의 몸무게는 고작 940g이었다.

의료진에 대한 환자 측의 믿음과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최선의 노력이 있으면 힘들 것 같았던 상황에서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 내곤 한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병동에서도 지난해 이런 훈훈한 스토리가 있어 감동을 더한다. 1kg도 채 안되게 태어난 아주 작지만 소중한 생명이 다시 정상적인 아기가 되어 무사히 부모의 품에 안겼다. 이는 의료진에게 보내준 부모들의 믿음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의료진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1kg 미만으로 태어난 아기를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라 한다. 이런 미숙아 상태에서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린다. 소아마비와 같은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아기의 미래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주치의였던 송준환 교수는 “이런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는 스스로 숨을 잘 쉬지 못해 삽관과 양압환기(기계식 인공 호흡)를 진행했고 또 삽관된 튜브를 통해 부족한 폐표면 활성제를 투여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미숙아는 폐포가 발달하지 못해 정상 호흡이 불가능하고, 시각과 청각을 포함한 모든 감각들이 미숙하다. 엄마로부터 면역성분도 받지 못한 채 태어난다는 설명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이 문제가 되며, 심각한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미숙아는 출생과 동시에 초기치치가 중요하다.

의료진의 노력이 부부를 감동시키다

NICU(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많은 위험과 여러 고비를 넘기며 힘겨운 시간을 보낸 지 사흘이 지나서야 한결이 엄마는 처음으로 아기를 볼 수 있었다. 폐가 잘 퍼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뇌출혈도 있었기에 면회를 하는 것이 곧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처음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있는 아기를 보며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아직 죽지도 않은 아기를 두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에 억지로 참았거든요.” 부부는 처음에는 병원에 있으면서도 의료진을 크게 신뢰하지 않았다. 몇 해 전 시아버지가 의료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의료진 과실이 80%로 판정받을 정도로 의료진의 과실이 명백한 의료 사고였다. 한결이 아빠는 “더 큰 병원으로 가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이 보여준 성의와 노력이 저희 부부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의료진을 100% 믿고 신뢰할 수 있

었거든요.”라고 회상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을 유지해야 했지만 송준환 교수는 매일 전화를 통해 아기의 상태를 전하고 치료 과정을 설명했다.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차근차근, 알기 쉽게 설명했다.

아기를 살려준 천사가 바로 의료진

기독교인이었던 한결이 엄마는 어느 날 잊지 못할 꿈을 꿔다. “꿈에서 아기를 집에 데려왔는데 너무 상태가 나빴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늘에서 천사 둘이 내려와 아기를 살려줬습니다. 자세히 보니 천사들이 의사와 간호사 복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기한 나머지 친정어머니에게 꿈 얘기를 들려주자,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저희 엄마가 천사 둘을 내려 보내 손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병원의 의료진들이야 말로 저희 부부에게는 진정한 천사들이었던 거죠.” 의료진의 노력과 부부의 신뢰는 결국 아기의 건강으로 이어졌다. 여러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아기는 건강을 찾을 수 있었다. 입원한지 약 3개월 반이 될 무렵 아기는 3.24kg의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할 수 있었다. “이제는 다른 아기들과 같이 건강한 한결이를 보며 항상 의료진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 근처를 지날 때면 한결이에게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저 병원에 한결이 제2의 엄마, 아빠가 있단다’라고요.” 부부는 항상 최선을 다해 아기를 돌봐주고 부부에게 용기를 잃지 않게 따뜻한 손길을 내민 의료진들이 한결이에게는 또 다른 부모나 다름없다고 속마음을 전했다. “한결이가 크면 의사를 시키고 싶지만, 의료진들의 고된 일과를 보니 또 망설여지더라고요(웃음). 한결이에게 제2의 삶을 준 순천향대천안병원 송준환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의료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대구·경북 지역 ‘홀렙’ 수술의 선구자

근무 13년 동안 단 한 번도 환자와 약속 어긴 적 없어



구미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윤종현

글_전진용 사진_전종훈

名醫

윤종현 교수는 고향은 경남이지만 5살 이후 줄곧 서울에서 성장하며 학창시절을 보냈다. 선생님이신 아버지와 다소 엄하셨던 어머니 밑에서 2남 2녀 중 막내로 자랐다.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매사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는 열정적이고 반듯한 학생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 전까지는 변호사나 판사와 같은 법조계 일을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서면서 의사의 꿈을 갖기 시작한 거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윤 교수는 항상 학교에 제일 먼저 등교했다. 어떤 때는 교문이 개방되기도 전에 도착해 학교 담을 넘기도 했다. “당시 빨리 오는 순서대로 앞자리를 앉을 수 있었거든요. 시력도 좋지 못하고 좀 더 정확히 선생님들의 수업 소리를 들으려고 제일 일찍 학교에 가곤 했습니다.” 항상 누구보다 일찍 출근을 하는 버릇이 이때부터 시작된 셈이다. 이렇듯 매사 학업에 최선을 다했기에 항상 본인 기대 이상의 좋은 성적을 유지했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나 판사가 아닌, 의사라는 직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윤 교수 미래의 진로가 판사에서 의사로 어느새 바뀌어 있었다.

지역 내 최초 ‘홀렙’ 수술 도입…재발을 낮고 만족도 높아

의대생 시절 역시 중·고등학교 시절과 다를 바 없었다. 순천향대학교 의대 17기인 윤 교수는 입학 후에도 중·고등학교 시절

과 마찬가지로 항상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의대생이었다.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야만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지금도 어떤 환자든지 다른 병원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찾아온 모든 환자들을 제 힘으로 책임지고 싶거든요. 그게 제가 맡은 일이니까요”

의대 졸업 후 공중보건의를 거치면서까지 전공과를 결정하지는 못했다. 당시에는 지금과는 달리 최고 인기 분야 중 하나가 ‘비뇨의학과’였다.

“상대적으로 메이저 과 보다는 마이너 과의 인기가 많았습니다. 비뇨의학과를 선택하였고 펠로우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는 것도 확정 됐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던 비뇨기과에 합격을 하고 누구나 가고 싶어 했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갈 수 있었지만, 그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었던 주임 교수님의 권유는 윤 교수의 발길을 구미병원으로 이끌었다.

“당시 주임교수님이었던 김민희 교수님께서 구미병원에 자리가 있으니 먼저 경험을 쌓는 것이 어떠냐며 권유 하셨습니다. 은사님의 말씀에 큰 고민 없이 구미병원행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미병원과 본격적인 인연을 맺은 것이 벌써 13년째다. 그만큼 윤 교수에게 선배들과 스승들은 비뇨의학과 의사로서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많은 스승님들과 선배님들이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셨습니다.

대한비뇨기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박영호 교수님, 환자들 신발까지 손수 신겨 주시던 이남규 교수님, 주임교수님이셨던 김민희 교수님, 수술의 정수를 가르쳐주신 천안병원의 전윤수 교수님, 모든 논문계획부터 동물실험까지 가르쳐 주신 서울병원의 송운섭 교수님, 여성 배뇨장애에 모든 것을 알려주신 부천병원의 김영호 교수님, 모두 저에게는 은인이자 멘토들 이십니다.”

구미병원에서 13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 하면서 언제부터인지 윤 교수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지역 내 최고의 비뇨의학과 의사가 됐다. 윤 교수는 지난 2013년 6월에 대구·경북 지역 내 최초로 홀렙(홀뮴레이저: HOLMIUM YAG LASER SYSTEM(VERSAPULSE POWERSUIT 100W) 수술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구미병원에 유독 많은 전립선환자들의 치료를 도맡아 왔다. 환자의 수술만족도 역시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구미병원에는 유독 나이 많으신 남성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많은 전립선비대증 수술을 지켜봐 왔지만 항상 환자들이 불만족스러워 했던 부분이 바로 재발 문제거든요. 홀렙은 재발률을 비약적으로 낮출 수 있는 수술입니다.”

홀렙 이전의 전립선비대증 수술은 몇 년 후면 다시 전립선이 자라고 재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달리 홀렙 수술은 전립선 부분을 완전히 제거해 재발률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배를 열고 직접 손가락으로 전립선을 제거하는 수술과 같은 효과를 얻으면서 부작용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입원 기간도 그동안 2주 이상이었다면 홀렙은 수술 후 이틀 후에는 퇴원이 가능합니다.”

가장 일찍 환자를 만나고, 가장 늦게까지 환자를 돌보다

윤 교수가 최근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분야는 ‘배뇨장애’다. 비뇨기 관련 장애 중에서도 환자에게 가장 불편하고 힘든 것이 배뇨장애기 때문이다.

“비뇨장애의 치료는 의사가 환자를 끝까지 끌고 가야만 가능합니다. 마치 내과 환자처럼 지속적으로 약을 쓰며 환자의 추이를 지켜보고 장기간 케어 해야 하거든요. 이 분야 연구를 통해 환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의사가 되고 싶냐 는 질문에 윤 교수는 “의사로서 칭찬은 듣지 못하더라도 욕은 먹지 않는 의사가 되려고 노력한다.”고 답했다. 이런 의사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온 것이 바로 환자와의 약속이다. 병원 내에서 가장 많은 조기진료를 하고, 가장 늦게까지 환자를 보는 이가 바로 윤 교수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조기진료를 여겨본 적이 없다. 환자와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저희가 보훈 환자를 위탁하는 병원이다 보니 나이 많은 어르신 환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잠이 없는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병원을 찾아 기다리는 모습을 보며 조기진료를 하게 됐습니다. 새벽부터 아주 멀리서 구미병원을 찾는 어르신들을 보며 의사로서 미안한 마음도 컸습니다.”

대구에서 구미로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지만 제일 일찍 오고 제일 늦게 병원을 나서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분들을 접하다 보니, 의사적 소견과 환자의 의견이 상충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환자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환자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을 내리되, 이후 관리에 더욱 힘을 쏟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충원에 노력...로봇수술 도입도 꿈꿔

요즘 윤 교수에게는 고민 하나가 있다. 비뇨의학과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

비뇨장애의 치료는 의사가 환자를 끝까지 끌고 가야만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약을 쓰며 환자의 추이를 지켜보고 장기간 케어 해야 하거든요. 이 분야 연구를 통해 환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는 구미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계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비뇨의학과가 예전에는 남성수술로 인기가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개인병원이 포화가 된 상태거든요. 과거에는 1년에 110명의 전문의를 배출했다면 지금은 고작 20명에 불과합니다. 저희 병원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인근의 종합병원에는 전문의가 1명 남을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하다.

“전문의 당 외래 환자수가 줄어야만 수술이나 치료가 원활해집니다. 무엇보다 구미병원의 전문의 충원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저 스스로 실력도 더욱 키우고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의료장비도 더욱 보강하려고 노력중입니다. 로봇수술을 도입하는 게 목표 중 하나입니다.”

비뇨의학과 후배들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현재 레지던트 후배들의 경우 많이 힘들 거예요. 연차마다 할 일들이 있지만 너무 많이 과부화가 걸리다보니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든 만큼 배우는 것은 더 많습니다. 참고 노력하

면 좋은 기회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전문의가 부족하여 전국 어디든 원하는 병원에 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13년간 몸담은 구미병원에 대한 애정 또한 남달랐다.

“사실 여타 병원을 보면 자신의 파트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 구미병원은 모든 스태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구미와 더 나아가 경북지역 내에서 환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여러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몸담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윤 교수는 “비록 저희 병원이 모든 환자를 책임 질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지만 구미병원을 거쳐 가는 환자들 좀 더 편하고 전혀 불편하지 않게 갈 수 있도록 항상 모든 스태프들과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모든 목표하는 것들이 당장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일찍 교실의 맨 앞자리에 앉아 수업을 준비 했듯이, 윤 교수는 오늘도 가장 일찍 진료실에 앉아 환자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분야별 최고 전문의 뭉친 '당뇨발 어벤저스'

완벽한 협진 시스템으로 최상의 결과 도출

글_전진용 사진_한남기



당뇨병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약 500만명이 넘는 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대표적 성인병이다. 이런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합병증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료가 힘들고 관리가 힘든 것이 당뇨병성 족부질환(이하 당뇨발)이다. 당뇨발 치료를 위해서는 9~10개 이상의 전문 분야의 협진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의들로 구성돼 완벽한 협진 시스템을 구축한 '당뇨발 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들을 '당뇨발 어벤저스'라 부르는 이유다.

당뇨발은 주로 혈관합병증, 신경병증, 세균감염 등에 의해 발에 물집이 생기며, 염증이 생겨 쉽게 퍼지고, 괴사가 일어나 썩어 들어가는 합병증이다. 동맥경화증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신경병증으로 피부감각이 둔해져 상처가 잘 생기며, 세균감염이 잘 일어나기 때문이다. 침입한 세균은 급속히 퍼져 발가락이 썩는 괴저로 진행하기도 한다. 당뇨병성 괴저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점점 퍼져 발목이나 무릎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듯 당뇨발은 중증 당뇨병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엔드스테이지(end-stage) 합병증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발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장, 콩팥, 혈관 등에 심한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기에 치료는 더욱 어렵다. 다양한 전문 분야의 협진이 없다면 효과적인 치료와 관리가 불가능한 이유다.

전국 4곳뿐인 당뇨발학회 인증센터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당뇨병 센터는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감염내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외과, 영상의학과, 흉부외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등 관련된 분야 최고의 전문의들이 참여하는 완벽한 협진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당뇨발 학회로부터 당뇨발 전문치료센터로 인증을 받은 전국 4곳 중 하나다.

서울병원은 지역 특성상 타 병원에 비해 당뇨병 환자 비율이 높다. 이에 대표적인 합병증인 당뇨발 치료에 있어서 보다 완벽하고 유기적인 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2019년 '당뇨발 센터'라는 공식명칭으로 변경했다. 현재 최적의 치료를 위한 완벽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한 상태다. 센터 소속의 전문의와 전문간호사 등 전원은 매주 1회 정기 회의를 진행한다. 이 회의에서 병원 내 모든 환자 리뷰를 통해 각 전문분야의 소견이 모아지고 최적의 치료방안을 도출해 내고 있다. 과거 당뇨발 치료는 환자의 모든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보지 못하고 가장 심각한 하나의 문제에만 집중해서 치료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그간 당뇨발 환자들은 단편적인 치료로 인한 만족도 저하, 치료의 실패를 호소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치료 효과는 극대화한 시스템이 바로 서울병원 당뇨발 센터라 할 수 있다.

내분비내과의 변동원 교수, 박형규 교수는 환자들의 지속적인 혈당조절 담당하며 환자의 당뇨병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영상의학과와 구동익 교수, 외과의 윤상철 교수, 흉부외과의 박영우 교수, 장원호 교수는 오랜 치료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발 환자의 혈관 협착 평가 및 하지 혈관 중재술 등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있다. 정형외과의 천동일 교수, 원성훈 교수, 성형외과의 김철한 교수, 송우진 교수는 당뇨발 병변에 대한 수술적 및 비수술적 치료를 통하여 창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감염내과 김태형 교수, 이은정 교수, 박세운 교수는 당뇨발에 동반된 골수염에 대한 항생제 등 감염증에 대한 폭넓은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그리고 재활의학과 천성민 교수는 당뇨발 환자의 수술적 치료 이후의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위한 각종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장내과의 전진석 교수, 권순효 교수, 김형래 교수, 이해경 교수는 당뇨발 환자의 투석조절 및 신기능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INTERVIEW

천동일 정형외과 교수

“최고의 협진, 완벽한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서울병원 당뇨발 센터는 최적의 치료를 위해 완벽한 협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전문치료센터로 통합한 이유는 발 외에도 피부, 정형, 재활 등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동시에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분야 대가로 불리는 여러 선배님들이 많은 데이터를 구축해 놓았다는 점도 큰 강점입니다.” 천동일 교수는 “당뇨발은 치료가 어려운 말기 합병증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주로 발목이나 무릎을 절단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당뇨발 센터는 단순한 절단이 아닌, 현 상황에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진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으며 부득이 절단을 해야 할 경우에도 생활에서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능적 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환자에 항상 6~7명의 전문의가 함께 치료와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당뇨발, 에이즈(AIDS), 코로나19 세가지 질병이 동시에 온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한 사례를 만들기도 했다.

“매주 1회 전 인원이 동시에 참가하는 회의를 통해 각 분야 전문의들의 소견을 모아 치료와 관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한 전문 간호사를 두어 위급시 환자와 전문의들과의 원격진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외부에 있는 환자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문 간호사가 단체 메시지를 통해 상황을 공유해 원격협진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완벽한 협진과 이를 원격진료와 유기적으로 연결 할 수 있는 더욱 보완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INTERVIEW

구동익 영상의학과 교수

“신뢰 기반한 완벽한 협진
환자 우선한 치료에 집중”

구동익 영상의학과 교수는 인터벤션영상의학의 전문가로 매년 1000여 건 이상의 혈액투석 동정맥루 관련 시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은 당뇨발 치료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오랜 치료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발 환자의 혈관 협착 평가 및 하지 혈관 중재술 등을 신속하게 시행해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당뇨발의 특성상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혈관문제를 동반해 갖고 있으며, 뼈에 염증이 동반된 경우도 많아 골수염에 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또한 혈당조절 및 잘 낮지 않는 당뇨발 상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역시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이 협진을 통해 원활히 이루어질 때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의료진간의 신뢰와 믿음이 기반이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구 교수는 “이런 모든 의료진들의 협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환자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도 있다.”며 “그런 안타까운 환자들을 볼 때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대부분 중증 말기 당뇨병 환자이기에 모든 의료진이 모든 역량을 발휘해 환자를 치료하고 사후관리에도 힘을 쏟아야만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질환은 한명의 의사가 치료를 잘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질환이 아니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환자 그리고 환자의 보호자까지 협동을 해서 나아가야만 해결 할 수 있는 매우 힘든 질환입니다.” 구 교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최고의 팀워크를 구축했기에 이렇게 복잡한 당뇨발에 대해서도 포괄적이고 조화로운 치료로 환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INTERVIEW

박세윤 감염내과 교수

“환자에 대한 애정에 과학적
체계적 관리가 더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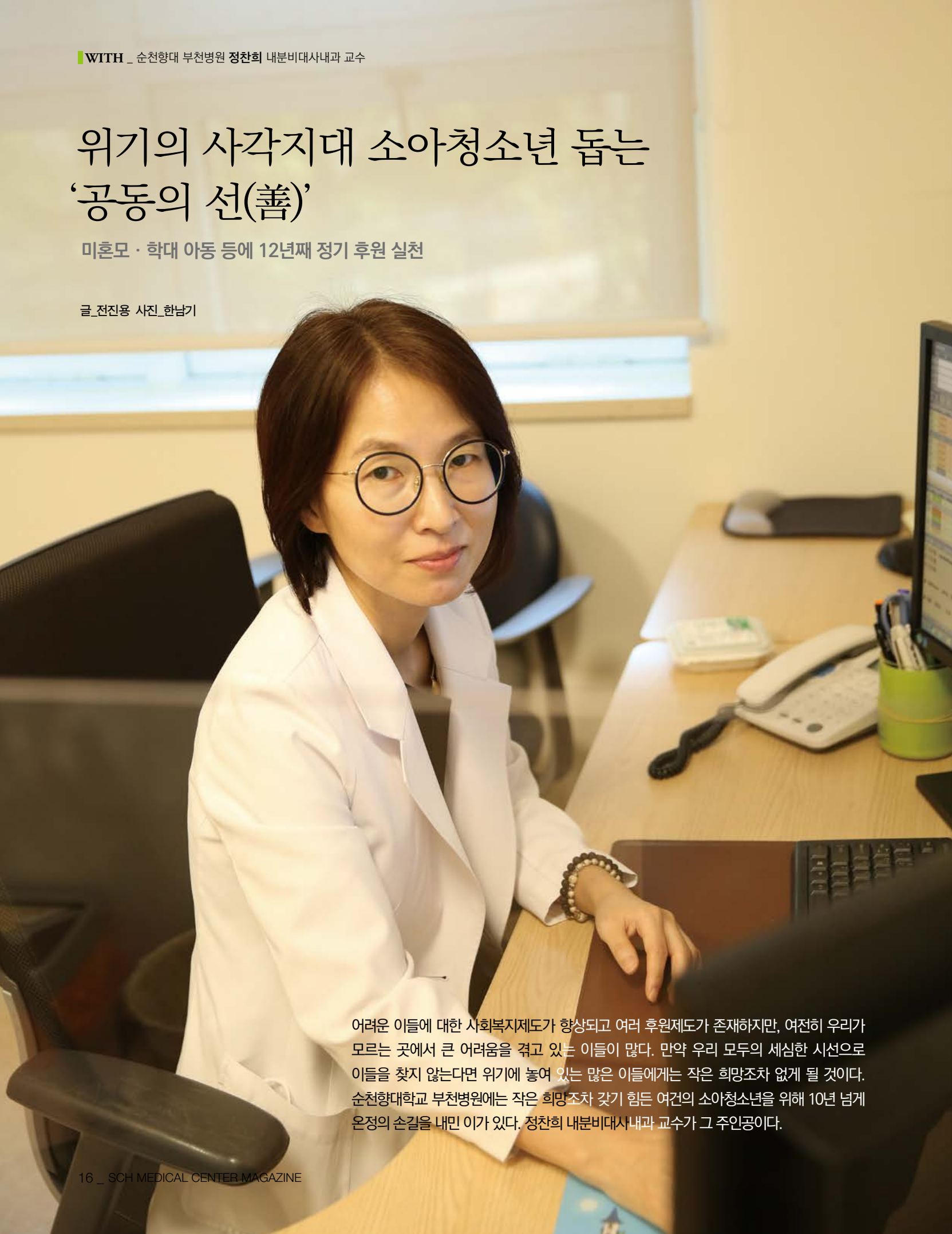
박세윤 감염내과 교수는 올해 2월 서울병원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시에도 침착한 대응과 완벽한 대처로 병원 정상화를 진두지휘한 바 있다. “당뇨발 센터에서 감염내과는 항생제를 얼마나 적절히 선택하고, 원인균을 찾으면 이를 다시 조절하고 또한 이 항생제를 어느 시기까지 써야하는지 등을 포괄적으로 결정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당뇨발 질환은 심장, 콩팥, 혈관 등도 좋지 않기에 바탕질환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 다른 질환에 비해 치료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혈관상태가 좋지 않아 항생제의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러 분야 전문의들과 협진이 중요한데, 저희 센터는 평상시부터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언제든지 불편함 없이 유기적인 협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15분부터 시작되는 회의에는 센터 내 모든 직원이 빠짐없이 참석한다. 적게는 5명, 많게는 20명 이상 현재 병원 내 관리중인 환자들에 대한 리뷰가 진행된다. “3년 넘게 모든 팀원들이 바쁜 와중에도 회의에 한명도 빠짐없이 참석해 치료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에 한명 한명이 모두 중요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치료와 수술을 위한 최적의 시기, 치료법 등이 결정됩니다.” 박 교수는 당뇨발 감염환자분들에게 절단수술 등 치료 이후에도 빠른 재활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서울병원 당뇨발 센터는 환자에 대한 깊은 애정을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몇 안 되는 전문기관”이라며 “모두가 어려워하고 꺼려하는 질환이지만 환자 한명 한명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이라고 강조했다.

위기의 사각지대 소아청소년 돕는 ‘공동의 선(善)’

미혼모 · 학대 아동 등에 12년째 정기 후원 실천

글_전진용 사진_한남기



어려운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제도가 향상되고 여러 후원제도가 존재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다. 만약 우리 모두의 세심한 시선으로 이들을 찾지 않는다면 위기에 놓여 있는 많은 이들에게는 작은 희망조차 없게 될 것이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는 작은 희망조차 갖기 힘든 여건의 소아청소년을 위해 10년 넘게 온정의 손길을 내민 이가 있다. 정찬희 내분비대사내과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정찬희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12년째 매월 30만 원씩 정기 후원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녀의 후원으로 도움을 받은 이들이 120여 명에 달한다. 매달 한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한 셈이다.

“어릴 적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두 팔 벌려 돕는 어머니를 보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전공의 시절 한 동기가 후원단체를 통해 기부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기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마음은 있어도 방법을 모르거나, 막상 실천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마음만 있다면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병원에서의 후원은 처음에는 우연히 접하게 된 딱한 사연의 환자들에게 조금씩 도움을 주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일일이 직접 사연을 찾아다닐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찾은 곳이 부천병원의 사회사업팀이다. “사회사업팀을 통해 보니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천병원 사회사업팀은 너무도 열정적으로 이런 힘든 분들을 돕고 있었으며, 매우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다양한 후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자선단체를 통한 후원을 계속해왔고, 그것도 큰 보람이 있었지만, 제가 몸 담고 있는 병원의 환자분들도 도울 수 있다면 더더욱 의미 있고 기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사회사업팀을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도움으로 희망이 이어지길

사회사업팀을 통해 너무나도 구구절절한 사연의 어려운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특히 미혼모, 학대 아동, 어린 소년 소녀 가장 등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의 소아청소년들 사연은 한 아들의 엄마이기도 한 정 교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한창 공부하고 친구들과 재밌게 놀며 부모님의 보호를 받을 나이에, 어떤 지지도 받지 못하고 모든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그 삶의 무게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너져 내린 사연들을 많이 봤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도움으로도 이들이 희망을 이어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사회사업팀에서 후원이 필요한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연결해주고 계셔서 저는 힘든 것 하나도 없이 후원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 교수가 정기 후원한 금액은 집계된 것만 5천만 원에 달한다. 정년 때까지 계산해보면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된다.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이런 후원이 어려운 상황의 사람들에게 작은 숨통이나마 트이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금액을 후원할 수 있는 제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전염병처럼 자연스레 전파되는 공동의 선(善)

정 교수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사회’ 속에서 모두가 함께 공존해 갈 수 있는 ‘공동의 선(善)’이다. “공동의 선이란 사회 속의 개별 존재들이 울곧게 자리하고 공생할 수 있도록 하는 숲속의 질서라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 사회가 정의와 공정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군가의 성공이 온전히 본인의 능력으로만 성공했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의 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사회를 정의롭고 공정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정 교수의 이런 마음은 자연스레 주변으로 전파되고 있다. 마음은 있지만 쑥스러워서 후원을 드러내고 하는 것을 망설이셨던 주변인들이 후원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병원에도 후원에 동참하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들었습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몸을 직접 써서 하시는 봉사활동에도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십니다.” 정 교수의 이런 후원 활동은 아이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제가 기부를 시작하게 된 것이 어머니의 영향이 큰 것처럼, 아들도 저를 보고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이에게도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아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힘든 사람들을 많이 후원하겠다’고 자주 말하는데, 엄마로서 흐뭇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정 교수는 정년 때까지 지금처럼 변함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좀 더 따뜻한 의사로 기억되는 것이 삶의 작은 목표라 말한다. “후원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당장 제 환자분들에게 좀 더 친절한 의사가 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마음먹은대로 잘 안 되는 때가 너무나 많지만, 저희 내분비내과 위 교수님들, 후배 교수님들처럼 친절한 의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의사가 되기에 있어서 친절함, 따뜻함이 50%를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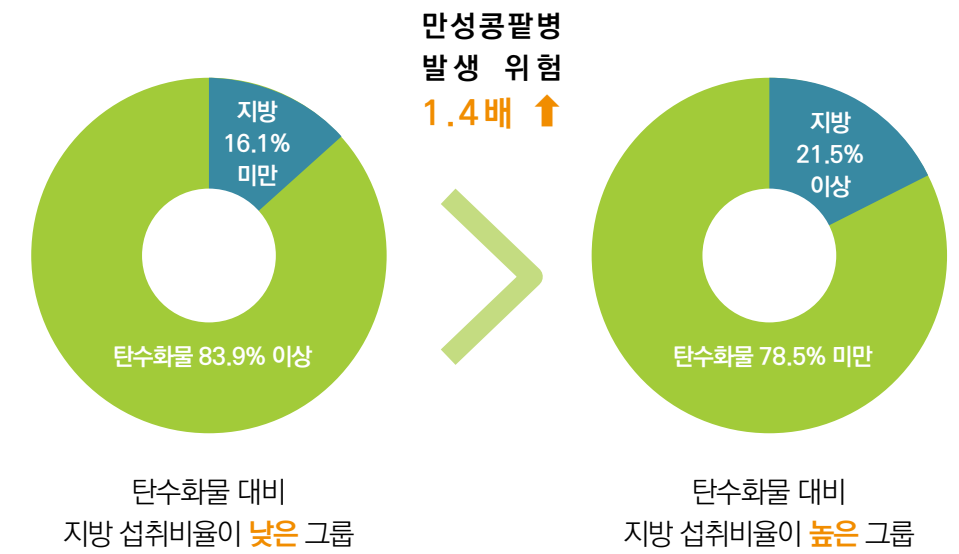
부천병원 사회사업팀에 대한 감사의 말도 전했다.

“항상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열정을 다하는 모습에 놀라곤 합니다. 또 아주 사소한 기부라도 일일이 드러내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치켜세워 줍니다. 좋은 일은 남몰래 하라는 말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기분 좋은 칭찬으로 다가와 더욱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번에도 이 인터뷰에 저를 추천하셨다는 말씀 듣고 저는 자격이 안 된다고 거절했지만, 괜찮다고 충분하다고 말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고, 용기를 냈습니다. 병원이 있어 저도 있고 후원도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천병원이 지금처럼 훌륭한 병원으로 건승하면 좋겠습니다.”

탄수화물 대비 지방 섭취 부족하면 만성콩팥병 발생 위험 증가

김형래 순천향대서울병원 신장내과 교수팀, 국제학술지에 논문 발표

탄수화물 대비 지방 비율이 낮은 영양 섭취일수록 만성콩팥병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나 제한된 지방 섭취를 피하는 게 만성콩팥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김형래 순천향대서울병원 신장내과 교수팀(김호식 이해경 권순호 전진석 노현진 한동철)이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 사업의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에 포함된 9,226명의 데이터를 탄수화물 대비 지방의 섭취비율로 분석해 논문으로 발표했다.



신장내과 김형래 교수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나 제한된 지방 섭취 피해야

탄수화물 대비 지방 섭취비율은 ‘지방과 탄수화물(지방+탄수화물)로부터 얻는 칼로리’를 ‘지방으로부터 얻는 칼로리 섭취량’으로 나눈 것으로 정의했다. 만성콩팥병의 발생은 사구체 여과율 60(mL/min/1.73㎡)미만, 혹은 단백뇨의 발생으로 정의했다. 대상자들을 평균 11.4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778명(8.4%)에서 만성콩팥병이 발생했고, 만성콩팥병이 발생한 그룹을 다시 탄수화물 대비 지방 섭취비율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눠 비교했다. 탄수화물 대비 지방 섭취비율이 낮은 그룹(지방 16.1% 미만, 탄수화물 83.9% 이상)을 비율이 높은 그룹(지방 21.5% 이상, 탄수화물 78.5% 미만)과 비교한 결과 비율이 낮은 그룹의 만성콩팥병 발생 위험이 1.4배 높았다. 추적관찰 4년째에도 16.1% 미만의 낮은 섭취비율을 유지한 그룹은 높게 유지한 그룹에 비해 만성콩팥병 발생 위험이 1.7배 높은 결과를 보였다. 추가적으로 탄수화물 대비 지방 섭취비율이 16.1% 미만으로 낮아지면 만성콩팥병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6.1% 이상만 유지하면 만성콩팥병 발생 위험은 탄수화물-지방 섭취비율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 되는 것을 확인했다.

김형래 교수는 “고단백 식사가 신장의 과도한 여과를 유발해 기능을 빠르게 감소시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탄수화물과 지방섭취가 만성콩팥병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가 부족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지나치게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하면서 지방을 적게 먹는 식이는 만성콩팥병을 유발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다이어트 등 일상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유럽임상영양대사학회의 국제학술지인 ‘임상영양(Clinical Nutrition)’ 최근호에 ‘Relationship between carbohydrate-to-fat intake ratio and the development of chronic kidney disease: A community-based prospective cohort study(탄수화물 대비 지방 섭취비율이 만성콩팥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 코호트 기반 연구)’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kci](#)



담도암, '담도내시경'으로 조기 진단 세계 최초 입증

소화내시경 분야 최고 권위지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지 10월호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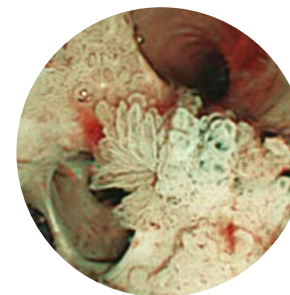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 문중호 교수팀(이윤나·신일상 교수)이 특별한 증상이 없는 담도암 고위험군 환자에서 담도내시경 선별 검사를 통해 담도암을 조기에 발견, 완치 가능하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입증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 문중호 교수팀(왼쪽부터 조선화 간호사, 이윤나·문중호·신일상 교수, 송아리 간호사)



담도내시경으로 진단된 조기 담도암



담도는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가늘고 긴 관으로 소화액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담도 어디에서든 암이 생길 수 있으며, 담도암의 5년 생존율은 30%로 예후가 매우 나쁜 암이다. 황달 등의 증상이 생기기 전까지 담도암을 조기 발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이때 병원을 찾았다면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환자는 40~50%에 불과하다.

문중호 교수팀은 지난 8년간 담도암 고위험군인 담도 결석 환자 207명을 대상으로 담도내시경검사를 시행했다. 결석을 모두 제거한 후 담도내시경으로 담도 내부를 살펴본 결과, 31명에서 이상 소견을 발견했고 그중 4명이 조기 담도암, 3명은 담도암 전 단계로 진단됐다. 이 중 5명은 수술로 암을 완전히 절제해 완치됐다. 연구팀은 담도내시경검사를 통해 환자 약 30명당 1명꼴로 담도암 관련 병변의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 같은 결과를 소화기내시경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지 10월호 (Gastrointestinal Endoscopy, IF: 9.427)'에 게재했다. 해당 학회지는 연구 논문 외에도 저자 인터뷰, 블로그 초청 등을 통해 이번 연구 결과를 비중 있게 다뤘다.

무증상 고위험군 환자에 담도내시경검사 최적

연구책임자인 문중호 소화기내과 교수는 “세계 최초로 특별한 증상이 없는 담도암 고위험군 환자에게 선별 검사 개념으로 담도내시경검사를 시행하여 CT나 MRI 등 다른 검사에서 발견하기 어려웠던 초기 담도암을 진단하고, 수술적 절제를 통해 완치 가능성을 높인 매우 의미 있는 연구 결과”라며, “앞으로 췌장담도 전문가가 손쉽게 쓸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한 담도내시경이 개발되어 예후가 나쁜 담도암을 조기 진단하고 치료하는 사례가 더욱 많아질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교수팀은 담도·췌장 내시경 관련 분야를 선도하는 연구 결과 및 해외 강의, 라이브 시술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늘 관련 의료진과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중부권 예방접종센터’ 234일의 기록

3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총 61,096명 접종

천안병원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중부권 예방접종센터’가 10월 22일부로 운영을 종료했다. 2021년 3월 3일 첫 접종을 시작한 지 8개월, 234일 만이다. 천안병원 접종센터의 접종 인원은 총 61,096명. 코로나19 전담 의료진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해 화이자, 모더나 같은 mRNA 계열 접종 대상으로 선정된 고령자, 교육자, 일반인까지 확대 실시한 최종 결과다.

이문수 병원장은 “천안병원 전 직원들의 헌신 속에서 ‘코로나19 중부권 예방접종센터’가 8개월의 눈부신 대장정을 마쳤다”며, “센터는 400만 중부권 지역민의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 복귀를 위한 희망의 징검다리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선도적 철저한 준비로 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 모범 세워

천안병원은 부여된 과업과 마주해서는 선도적 사고와 철두철미한 준비로 항상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다. 그래서 지방소재 대학 병원이지만 암 치료, 장기이식, 응급의료, 모자보건 등 수많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새로운 모범을 세우면서 위풍당당한 중부권 최중거점병원으로 성장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 앞에서도 천안병원은 역시 달랐다. 특유의 자발적이고 선도적인 도전과 노력을 기울인 천안병원은 당당히 ‘중부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되었고, 이어 ‘코로나19 중부권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은 마땅한 선례가 없어 난항을 겪을 터. 그러나 천안병원은 범병원 TFT를 가동하는 등 발 빠르게 출범 준비에 나섰다. TFT는 딱딱딱딱,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을 일찌감치 만들어냈다.

경연진을 비롯한 직군별 수십여명이 참여한 TFT는 ▲상황총괄 ▲인력관리 ▲예방접종 관리 ▲접종 후 관리 ▲자원관리 등 세

분화된 완벽 지원으로 접종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했다. TFT 구성원들 외에도 센터에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약사,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된 30여명의 전문 인력이 준비 단계부터 투입되어 시종 함께 했다. 천안병원은 콜드체인 구축과 접종 및 운영 시스템 개발과 설치를 위해 지난 1월 내내 진땀을 흘렸다. 설날연휴를 앞둔 2월 9일 드디어 영하 70도 이하의 초저온 냉동고 설치와 함께 하루 최대 600명을 접종할 수 있는 접종센터의 설치가 완료됐다. 이후 이어진 보건복지부장관, 충남도지사, 천안시장 등 정부 및 자치단체들의 준비상황점검을 위한 현장방문. 모두가 잘 준비된 센터의 모습에 큰 만족감을 표시했고 센터의 위용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언론에 비쳐진 센터의 잘 갖춰진 모습에 전국적인 전학의 발길들도 뒤따랐다. 그렇게 처음부터 많은 관심 속에 출발한 센터는 시종 분주해야만 했다.

이문수 병원장,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 수훈

3월 3일. 센터가 접종을 시작했다. 순천향대천안병원을 비롯해 단국대병원, 국립공주병원, 베스티안병원, 공주의료원 등에서 코로나19환자 치료담당 의료진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했다. 센터는 직접 접종 외에도 접종인원 120명이 넘는 10개 의료기관에는 백신 공급과 교육도 도맡았고, 그 외 중부권 내 많은 지



❶ 1호 접종자인 서윤하 간호사가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❷ 화이자 백신이 초저온 냉동고에 입고되고 있다
❸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 관리 운영 ❹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 ❺ 양승조 충남도지사 방문 ❻ 박상돈 천안시장 방문



천안병원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 내 이물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역센터 관계자들의 참관 교육도 진행해 차질 없는 백신 접종을 지원했다. 센터는 첫날 107명을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총 17,913명이 접종을 마쳤다.

계획했던 접종이 마무리된 7월부터는 접종 범위를 천안지역으로 축소하는 한편 접종 대상자를 확대했다. 명칭도 ‘코로나19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예방접종센터’로 변경했다. 지자체에서 선정한 천안 지역의 mRNA 계열(화이자, 모더나) 백신접종 대상자의 접종을 시행했다.

7월부터 그렇게 이어진 센터의 접종 수는 운영 종료일까지 총 43,183명. 접종자들은 75세 이상 고령 노인을 비롯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종사자, 일반인 등 다양했다. 18세 이상의 예방접종이 마무리되고, 전체 인구 대비 접종 완료율이 70%가 넘어 보건소나 일부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충분히 접종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센터는 10월 22일부로 운영을 종료했다. 충남북·대전·세종 등 중부권역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본부로서 센터는 잘 만들고, 잘 운영했다는 평가와 함께 이문수 병원장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수훈했다.

이문수 병원장은 “수훈의 공은 코로나19접종에 헌신해준 병원 직원들과 센터 운영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지자체·군·경·소방 관계자 분들”이라며, “센터 운영은 비록 종료되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순천향의 도전과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지역 코로나19 방역 의료 거버넌스 구축

확진자 조기발견 및 확산차단위한 지자체·의료기관간 업무협약 체결

구미병원은 지난 8월 24일 구미시청 3층 상황실에서 구미시와 지역 민간병원과의 의료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 조기발견 및 확산차단 위해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무료진단검사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지역민 불안감 해소에 큰 역할

이번 협약식은 임한혁 병원장(순천향대 구미병원)을 비롯하여 장세용 구미시장,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 등 2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지원대상은 구미시민으로서 코로나19 유증상자,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동선이 겹치는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등이며 코로나19 검사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미병원에서는 코로나19 발생초기에 감염증 확산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로부터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며, 선별진료소 설치와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운영 등을 통하여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전방위적인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민이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응급선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유증상자가 내원 시 응급실내에 별도로 설치된 음압격리실에 즉시 격리하여 치료하므로 병원 내 2차 감염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음압격리병실 운영과 코로나19 검사의 빠르고 정확한 결과 확인을 위해 PCR검사 장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교직원들이 감염병 확산과 병원내부 전파에 대한 선제적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미병원은 확진자 조기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방역 의료 거버넌스 구축했다. 사진은 위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무료진단검사 업무협약 체결, 호흡기전담클리닉, 응급실·병동 이동형 음압기 설치 모습.





김수영 순천향대 서울병원 피부과 교수

매연이나, 석탄, 기름, 가스, 폐기물 등의 불완전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알레르기 질환인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아와 노인, 과체중 혹은 비만한 사람일수록 대기오염에 의한 아토피 질환 발생의 상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적인 대기 오염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는 자동차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연료의 소모 과정에서 발생하고, 담배 연기에도 포함돼 있다. 주로 소변으로 배출된다. 김수영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피부과 교수가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피부과와 함께 연구한 ‘소변 내 다환방향족탄화수소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의 농도와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발생의 상관성’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이다. 이번 연구는 2005년과 2006년 미국의 건강영양조사 자료 중 2,242명의 환자 데이터를 이용해 소변에서 측정한 9가지 PAH 유도체 농도와 아토피 질환의 관련성을 연령별, 체중별로 구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관찰했다. 9가지 PAH유도체 농도에 따라 가장 낮은 1분위 군부터 가장 높은 4분위 군으로 나누었다. 연령층은 6-17세를 소아, 18-49세는 성인, 50세 이상은 고령층으로 구분하였고, 체중은 BMI(Body mass index) 25 미만을 정상, 25 이상을 과체중 및 비만으로 구분했다.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은 각각 환자의 만성소양증, 감기 없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콧물이나 코막힘 재채기 증상, 천명음과 쌉쌉거림 등의 대표적인 증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로 정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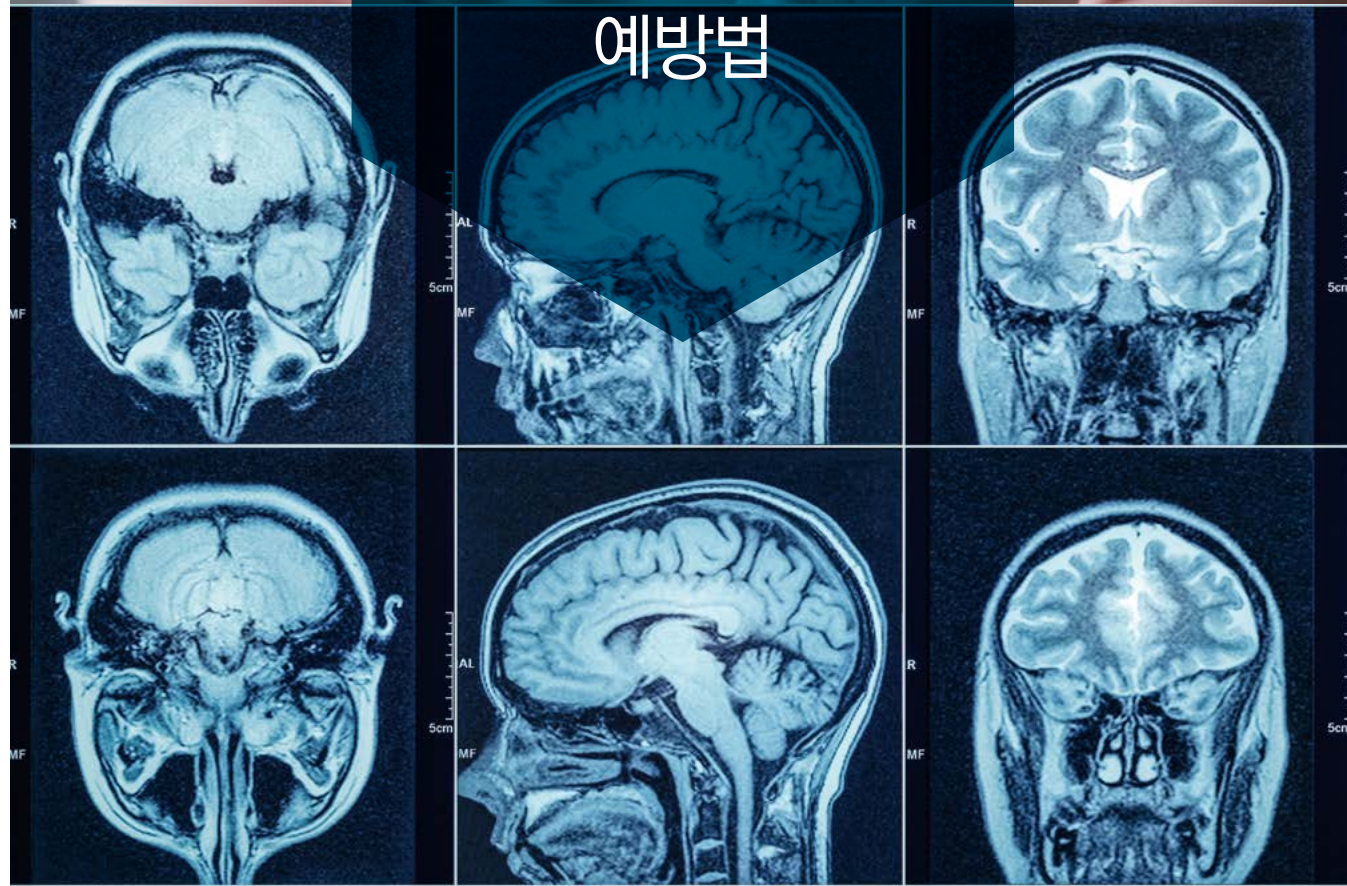
아토피는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천식 등 3가지 질환이 특징
9가지 PAH 유도체의 농도와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발생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4가지 대기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을수록 천식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4가지 PAH유도체는 1-히드록시나프탈렌(1-hydroxynaphthalene), 2, 3, 9-히드록시플루오렌계(hydroxyfluorenes)로 이들 농도가 가장 높은 4분위 군에서 가장 낮은 군에 비해 천식의 발생이 2.1~2.9배 증가했다. 연령별 분석에서는 소아와 성인에서 1-히드록시나프

탈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천식의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성인과 노인에서는 2, 3-히드록시플루오렌의 농도가 높을수록 천식의 발생률이 3.4~4.2배 유의하게 증가했다. 특히, 노인에서는 3-히드록시페난트렌과 1-히드록시파이렌의 농도가 가장 높은 4분위 군에서 가장 낮은 군에 비해 만성소양증의 발생 위험이 4.8~5.2배 유의하게 증가했다.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과체중 및 비만한 집단에서 2-히드록시페난트렌의 농도가 높을수록 만성소양증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1-히드록시나프탈렌과 2, 3, 9-플루오렌 계열의 농도가 높을수록 천식의 발생 위험을 유의하게 높였다. 김수영 교수는 “대기오염물질인 PAH와 아토피 3대 질환의 발생을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PAH 유도체는 특히 호흡기 질환인 천식의 발생과 유의하게 관련이 깊었다.”며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과체중/비만일 경우에 특정 PAH 유도체가 아토피피부염 및 천식의 발생률을 높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에 의한 아토피 질환의 발생에 더 취약함을 확인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토피는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천식이라는 3가지(atopic triad) 질환이 특징이다. 발병원인으로 공통된 면역기전을 공유하며, 어린이에서 성인기를 거치며 순차적으로 나타나 중복해서 이환 될 확률이 높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SCIE)인 ‘Journal of Dermatological Treatment’에 ‘The association between urinary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metabolites and atopic triad by age and body weight in the US population’ (미국인에서 연령별 체중별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유도체의 농도와 아토피 3대 질환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발생의 관련성] 라는 제목으로 게재 승인되어 출판을 앞두고 있다.



두통과 어지럼증 반복되는 ‘전정편두통’

예방법



이익성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과 교수

어지럼증의 다양한 원인 중 하나인 ‘전정편두통’은 흔히 ‘편두통성 어지럼’이라고 부르는데, 구역, 구토 증상을 동반한 두통과 어지럼이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재발성 어지럼은 전정편두통, 메니에르병, 이석증과 같은 양성 질환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뇌졸중과 같은 위험한 원인으로도 드물게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증상이 있다면 어지럼을 전문 진료하는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뇌영상검사로 타 질환 여부 확인

전정편두통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정편두통과 증상이 유사한 다른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CT나 MRI 등 뇌영상검사를 통해 소뇌 부위에 두통과 어지럼을 유발할 만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뇌에 구조적인 이상이 없다면 평형기능검사와 청력검사를 통해 이석증, 메니에르병 등 다른 질환 여부를 확인한다.

일상생활 어려울 땐 ‘편두통 예방약’ 복용

전정편두통의 치료 목표는 증상 재발 빈도와 강도를 줄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어지럼이나 두통 때문에 한 달에 5일 이상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면 매일 복용하는 ‘편두통 예방약’을 복용해야 한다. 먹는 약으로 증상이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먹는 약을 쓸 수 없다면 ‘보툴리눔독소’를 두피에 주사하거나 ‘칼시토닌유전자관련펩타이드(CGRP) 표적 편두통 예방 치료제’ 주사를 맞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식습관 개선에도 힘써야

전정편두통 환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공복’이다. 6시간 이상 공복이 지속되면 두통과 어지럼이 더 잘 생기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아침 식사를 꼭 먹는 것이 좋다. 기상 직후 매번 두통과 어지럼이 생긴다면 취침 전에 우유 한 잔이나 간단한 간식을 먹으면 수면 중에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뇌혈관을 수축시키는 티라민(Tyramine)이 많이 함유된 치즈, 식초, 초콜릿, 양파, 와인, 호두, 콩, 파인애플, 바나나, 시금치, 요구르트 등은 편두통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MSG나 아질산염도 과다 섭취하면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 커피는 아메리카노 기준 하루 한 잔 이하로 복용하는 것이 좋다. 전정편두통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두통과 어지럼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증상이 만성화돼 치료가 어려워진다. 본인에게 맞는 편두통 예방약을 3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면 두통과 어지럼의 빈도와 강도를 줄여 원활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실명 부르는 ‘녹내장’ 관련 FAQ 다섯 가지



인정희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안과 교수

1. “안압이 높는데 녹내장이 아니래요.”

안압이 녹내장의 발생 및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안압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녹내장은 아니다. 녹내장은 안압 외에도 시신경의 녹내장성 손상과 시야 결손의 유무로 진단한다. 안압이 정상범위보다 높더라도 시신경 손상이 없고 시야가 정상이면 녹내장이 아니라 고안압증이다. 하지만 고안압증도 추후 녹내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시신경의 변화와 안압 상승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진해야 한다. 안압이 30mmHg 이상이거나 녹내장 가족력 등 녹내장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안압 하강제를 점안 교육한다.

2. “안압이 정상이면 녹내장이 아니죠?”

안압의 정상범위는 10~21mmHg. 그런데 안압이 정상이라도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과 시야 결손이 있을 경우엔 녹내장이다. 이를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동양에서는 정상 안압 녹내장의 유병률이 70~80%로 서양에서 흔한 개방각 녹내장보다 더 높다. 정상 안압임에도 시신경이 손상된 것은 그만큼 시신경이 약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안압이 정상범위라도 안압 하강제를 점안해 안압을 더 낮춰줘야 한다. 시신경에 가해지는 물리적 스트레스를 줄여 손상의 진행을 늦춰야 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약물에 반응이 없을 경우 다른 계열의 약을 사용해 볼 수 있으며, 만일 안압이 충분히 하강되지 않거나 안압이 떨어졌음에도 녹내장이 진행한다면 약을 추가한다. 또한 정상 안압 녹내장은 시신경으로의 혈류의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혈압, 고지혈증 등 혈류의 흐름과 관계된 내과적 질환을 잘 관리해야 한다.

3. “녹내장인데 시력교정수술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녹내장은 시력교정수술(라식, 라섹)의 금기사항은 아니다. 수술은 가능하며 굴절교정수술 자체가 녹내장을 더 악

화시킨다는 보고나 근거는 없다. 하지만 시력교정수술을 받게 되면 각막의 형태가 바뀌고 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에 안압이 실제로보다 낮게 측정되어 녹내장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에 수술시행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수술 후에는 스테로이드 점안액이 안압을 상승시키는 경우도 있어 자주 안압을 측정해야 한다. 이때 상승한 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녹내장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4. “안약을 넣으면 눈이 충혈 되고 따가워요.”

녹내장 환자는 매일 안압 약을 점안해서 안압을 관리해야 한다. 이 녹내장 안약은 충혈, 따가움, 알러지 반응, 속눈썹 길어짐, 눈 밑 검어짐, 눈 피로 증상 등의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약을 꾸준히 쓰다 보면 충혈 등 부작용이 줄어들기도 하나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면 다른 계열의 약제를 찾아야 한다. 안약의 부작용은 안약 점안의 순응도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 후 약제를 결정해야 한다.

5. “수술 후에도 안약을 또 넣어야 하나요?”

녹내장의 수술적 치료는 약물적 치료, 레이저 치료에도 불구하고 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시행하게 된다. 우리 눈에는 녹내장 수술할 수 있는 곳이 2~3곳 밖에 없어 평생 받을 수 있는 수술 횟수가 많지 않아 최대한 약물로 치료를 시행한 후 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수술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안압 하강의 유효기간은 5~10년 정도에 불과해, 수술효과는 영구적이지 않다. 수술 후 안압이 다시 상승하면 안압 하강제를 다시 점안하게 되며, 수술 부위에 대한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안압 조절이 안 되면 재수술을 하게 된다. 녹내장은 평생에 걸쳐서 진행하며, 수술 한 번으로 치료가 끝나는 질환이 아니다. 평생 꾸준한 안압 관리를 통해 녹내장 진행을 늦추는 것이 최선의 치료임을 알아야 한다. 



정지윤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현대인의 영원한 숙제, 비만으로 인한 다이어트! 비만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 등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우울증,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 시대에는 외부 활동이 감소하고, 배달앱으로 살찌기 쉬운 음식의 섭취가 간편해지면서 비만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 등의 대사 이상을 동반한 경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체중 감량을 위해 식이 요법, 다이어트 보조제, 운동 요법 등이 끊임없이 소개되고 유행하기도 하지만, 꾸준히 음식 섭취를 줄이고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하지만 먹고 싶은 욕구를 이겨내고 긴 시간 다이어트를 이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때 체중 조절을 위한 약을 복용해도 될까 궁금증이 생긴다.

대부분의 체중 조절을 위한 다이어트약은 식욕억제제이다. 그 외에는 장에서 지방 흡수를 억제하여 체중 감소를 유도하는 제니칼(성분명: 오리스타트) 등이 있다. 효과 측면에서 식욕억제제들의 체중 감소 효과가 좀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 허가되어 있는 식욕억제제 중 흔히 처방되는 성분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이 있다. 이는 마약성 식욕억제제로 4주 내 단기 처방하고 최대 3개월 미만으로 사용해야 한다. 16세 미만과, 폐동맥 고혈압이나 심장 판막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사용 할 수 없다.

그 외에도 진행한 뇌경색이나 심혈관 질환, 갑상선기능항진증,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 녹내장 환자의 경우 사용이 제한되며, 불면증 등의 정신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다. 비교적 좋은 체중 감소 효과로 기대를 받았던 식욕억제제 벨빅(성분명: 로카세린)은 암 발생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허가 취소되었다. 식욕억제 성분인 펜터민과 기존의 편두통 치료제로 사용되던 토피라마이드의 복합제인 큐시미아(상품명)는 1년 이상의 임상시험에서 안전성 데이터를 얻어 장기 사용이 허가되었다.

단기간의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이른바 요요현상으로 인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욕억제제를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사

용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큐시미아의 경우 1년 정도의 투여 후 9%-12% 정도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다. 녹내장으로 인한 시력감소나 눈의 통증, 미각이나 지각 이상, 불면증, 저혈압, 자살생각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무리하게 용량을 증량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갑자기 중단 할 경우 발작의 위험이 있으므로 의사의 진료와 함께 투약을 조절해야 한다. 삭센다(성분명: 리라글루타이드)는 주사제라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거의 없고, 5년 이상의 투약에도 높은 안전성을 보인다는 장점으로 처방이 꾸준히 늘고 있는 약이다.

삭센다는 GLP-1이라는 장에서 분비되는 혈당 조절 호르몬의 유사체로서, 위장 운동을 감소시키고, 뇌의 포만중추에 작용하여 식욕을 감소시킨다. 구역, 구토, 변비나 설사, 담석 발생 등의 위장관 관련 부작용이 대부분이며,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루 한번 복부나 허벅지의 피하에 스스로 주사하게 되고 평균 1년 투여에 9% 정도의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한다.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큰 장점으로, 2년 이상 치료한 환자에서 20% 이상 체중 감량을 성공한 환자도 있었다. 성급하게 체중을 빼고 싶어서 단기간의 원푸드 다이어트, 초저열량 다이어트, 극단적인 케톤식이 등의 식이요법을 시도하기도 하고, 비싼 다이어트 보조식품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방법들은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더라도,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고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꾸준히 균형 잡힌 식사량을 줄여서 먹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다. 이때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여, 적절하게 다이어트약의 도움을 받는다면 다이어트라는 영원한 숙제를 마치고 건강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그네튬 비다 3T

MAGNETOM Vida 3.0T



주요 장점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 가능
호흡 자동 측정 및 왜곡 보정 기능으로 응급·소아·고령 환자도 편안하게
넓은 출입구와 소음 절감 기법으로 환자 불안감 줄여

새 MRI 도입으로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환자 중심의 검사가 가능한 MRI를 도입해 더 편리하게
정확한 검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도입한 지멘스社の '마그네튬
비다 3T(MAGNETOM Vida 3.0T)'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진단의 정확도가 높
아지고,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복부나 심장 검사 시 소아나 고
령 환자, 의식 없는 응급환자 등이 움직이거나 잠시 숨을 참기 어려워 여러 차례
다시 검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새로 도입된 MRI는 편안하게 숨 쉬며 촬
영할 수 있고, 진단 영상의 질도 크게 향상됐다. 또, 70cm의 넓은 출입구와 소
음 절감 기술이 적용되어 소아나 폐소공포증 환자 등의 불안감을 줄인다.



믿고 다시 찾는 병원을 만들다

강남에서 ‘가슴성형’ 특화로 경쟁력 입증

글_전진용 사진_최종엽

서울 강남에는 우리나라 성형외과의 80%가 밀집해 있다. 그만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부 병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강남 신사역 사거리에 위치한 한 건물에만 더블유성형외과를 포함해 총 5개의 성형외과가 있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혁수 더블유성형외과 원장은 ‘가슴성형’ 분야를 특화시켜 오랜 기간 동안 이 분야 최고의 병원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제 한국을 넘어 중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오 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 8기인 오혁수 원장은 모범적이고 조용한 의대 학창시절을 보냈다. 어떤 이들은 대학 입학 후 해방감으로 일탈을 꿈꾸기도 하지만, 오 원장에게 있어서 의대시절은 고등학교의 연장이나 다름없었다. “어린 시절부터 줄곧 공부 열심히 하는 조용한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과대학에 오니 할 공부가 더 많더군요. 의대시절 기억은 늦은 시간까지 공부와 수업을 했던 것과 서클활동으로 잔디밭에서 기타 치며 노래 부르던 거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오 원장이 의사를 꿈꾼 이유는 아버지의 꿈이 의사였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6.25 사태 이후 병원에서 간호보조사와 같은 일을 하며 의사를 꿈꿨지만, 제도가 바뀌면서 꿈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에는 병원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점정고시 같은 것으로 의사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커리큘럼이 생기고 의대가 생겨나면서 아버지는 꿈을 접으셨거든요.” 6남매 중 5째인 오 원장만이 아버지의 꿈을 대신할 수 있었다. “막상 의대에 들어와 보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왜 의사가 되어야 하는지, 왜 이처럼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도 우주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번은 아버지에게 “왜 저를 낳으셨나요?”라며 대들기도 했다. 자신의 존재가치와 인생에 있어서 여러 혼란스러운 감정을 토로한 것이다. 이 말을 다 들은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네 말이 다 맞다. 우리는 우주와 세상에서 모래알만도 못한 존재인 게 사실이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없으면 이 세상도, 이 우주도 존재할 수 없는 것 아니겠니?”

아버지의 이 말을 들은 후, 오 원장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180도 바뀌었다고 회상한다. “의사이든 다른 직업이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스스로 그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스스로 해답을 찾다보면 반드시 깨달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와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의대시절 처음부터 성형외과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환자들을 살리는 드라마틱한 분야를 선호했다. 처음에는 신경외과, 흉부외과에 관심을 가졌다가 최종적으로 바이탈을 가장 잘 다뤄야 하는 내과를 선택했다. 내과에 지원했지만 떨어졌다. 그래서 군의관으로 군복

무를 먼저 하게 되었다. 그때 우연히 성형외과에 관심을 갖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부사단장이 언덕에서 심하게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망가진 얼굴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함께 일했던 치과 구강외과의가 한 달 만에 부사단장의 얼굴을 깨끗하게 만들더군요.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너무도 기뻐하는 부사단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목숨을 살리는 것 외에도 환자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느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성형외과였다. 종합병원 등에서 2년 근무 후 2002년 동기들과 함께 강남 한복판에 성형외과를 개원했다. 당시 2002년부터 2007년 정도가 강남 성형외과들이 가장 뜨거웠던 시기라 회상했다.

‘가슴성형’ 특화…믿고 다시 찾는 병원을 만들다

강남 한복판에서 더블유성형외과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가슴성형’ 분야의 특화와 남다른 환자관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젊은 의사에 비해 느리더라도 꾸준한 면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수술 전부터 수술 이후까지 끊임없이 설명을 반복해 환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 병원을 경험한 환자들은 다른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가슴성형 외에도 안면윤곽, 코성형에 있어서 경쟁력을 인정받아 이제는 강남에서도 꽤 높은 인지도를 구축했다. 특별히 광고를 하지 않아도 소개로 또 다른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다. 이제는 한국을 넘어 중국진출도 꿈꾸고 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중국 여러 곳을 직접 방문해 현지 환자들을 관리했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중단된 상태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중국진출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성형외과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1남 2녀 자녀 중 첫째와 둘째도 의사의 길을 걷고 있다는 오 원장은 “고향 가는 길에 모교인 순천향대학교를 지날 때면 발전된 모습에 자긍심이 생긴다.”며 후배들에게는 “자신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의사가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누군가에게 어떤 작은 만족이나 행복이라도 줄 수 있기에 의사는 꽤 괜찮은 직업”이라고 덧붙였다. ■

“50대에 첫 ‘혼행’, 이렇게 좋은 걸 미처 몰랐어요”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하는 시간

글_전윤정

목포에 집을 마련한 친구가 놀러 오라고 연락이 왔다.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그동안 가족 누구도 눈치를 주지 않았지만, 나는 내가 없으면 큰일이 날 듯 집을 비우지 못했다. 건강 식단이다, 다이어트 식단이다 해서 딸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먹는데, 나만 늘 밥걱정이다. 매일 출근하는 남편에게 나 혼자 놀러 간다고 말하기도 미안했다. 내가 없으면 반려견 산책은? 내가 없을 때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나중에 부모님이 서운해 하지 않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걱정에 둘러싸여 눈치를 보는 사람은 나뿐이구나 싶었다. 나이 오십이 넘어서도 걱정에 저당 잡혀 현재를 즐기지 못하다니! 모든 것을 제쳐두고 떠나기로 했다.

하지만 나는 고작 3일 여행을 앞두고도 욕실을 청소하고, 빨래해서 널고, 먹거리를 쟁여놓기 위해 장을 봤다. 가족들이 괜찮대도 나는 불안해하며 이것저것 장바구니에 담았다. 떠나기 직전까지 청소기를 돌리고 분리수거를 했다. 내가 맡은 주부 역할을 완수하고 떠나야 덜 미안할 것 같았다.

막상 집을 나서니 설렘보다 걱정이 앞섰다. 처음 타보는 KTX부터 떨렸다. ‘승강장을 잘 찾아갈 수 있을까? 나 혼자인데 줄다가 목적지를 지나치면 어찌지?’ 다행히 지하철 서울역에서 KTX 타는 곳까지는 에스컬레이터로 잘 연결되어 있었고, 2시간 반 만에 무사히 목포에 도착했다.

‘혼행’이라서 할 수 있는 것들

친구 집에 갔지만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도 보냈다. 미룰 수 없는 골프 선약이 있다고 미안해 하며 집을 나서는 친구와 달리 내 가슴은 뛰었다. ‘오롯이’ 혼자 여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저 신났다. 전날 카페에서 우연히 접어 왔던 ‘목포 근대역사 문화공간’ 안내 지도만 들고 무작정 집을 나섰다.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자 일본영사관으로 쓰였던 ‘목포 근대역사관 제1관’부터 시작했다. 일제 강점기 당시 건물과 현재 모습이 대비된 모형과 사진을 전시하고 있었다. 근대건축물을 보존하거나 허무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 전문 해설사에게 가서 물었다. 결정할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지만, 땅이 사유지면 역사적 의미가 깊은 건물도 철거를 막기가 어렵다고 한다.



여행할 때 동행인이 있으면 관광 중에 궁금한 점이 생겨도 혹시나만 모르는 것일까 창피해서 그냥 삼켜버릴 때가 많았다. 때로는 질문하는 것이 유난스러워 보일까 봐 혹은 동행이 기다리는 것이 미안해서 지나칠 때도 많았다. 혼자 여행하니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어 좋구나. 여행지에서 혼자 점심을 먹으려니 몇찍었지만, 준치 회무침으로 유명한 식당을 찾아갔다. 다양한 반찬으로 한 상이 거나하게 차려졌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아 내가 좋아하는 반찬만 한두 개만 남기고 바로 거둬가도록 부탁했다. 이것도 혼자 여행이니까 가능하단 싶었다.

‘썩어도 준치’라는 말처럼 준치 회무침은 싱싱하고 맛있었다. 여럿이 함께 먹으며 공감할 수 없어 아쉽지만, 대화가 없으니 오히려 미각이 예민해지는 느낌이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편안하게 음식에 집중하니까 마치 내가 암행 중인 음식 평론가라도 된 느낌이었다.

목포항을 따라 걷다가 한적한 벤치에 앉아 쉬다가 다시 걷다가 유달 초등학교에 발길이 닿았다. 일본인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된 ‘목포 공립 심상 소학교’였던 당시 건물이 한시적으로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3관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동행인의 재촉이나 간섭 없이 나 혼자 마음에 드는 작품 앞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전시회 봉사자가 다가와 조곤조곤 작품 해설을 해주었다. 개인 맞춤 도슨트 경험도 혼자 여행에서만 얻을 수 있었던 좋은 추억이었다.

나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

소설가 백민석은 ‘혼자 먼 거리를 다니는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과 함께 다니게 된다. 둘이서 다닐 때는 상대를 챙기느라 종종 잊곤 하는 자기 마음을 비로소 챙기게 된다. 여럿이 다닐 때 생겨나는 위계의 관계에서도 풀려나 비로소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게 된다’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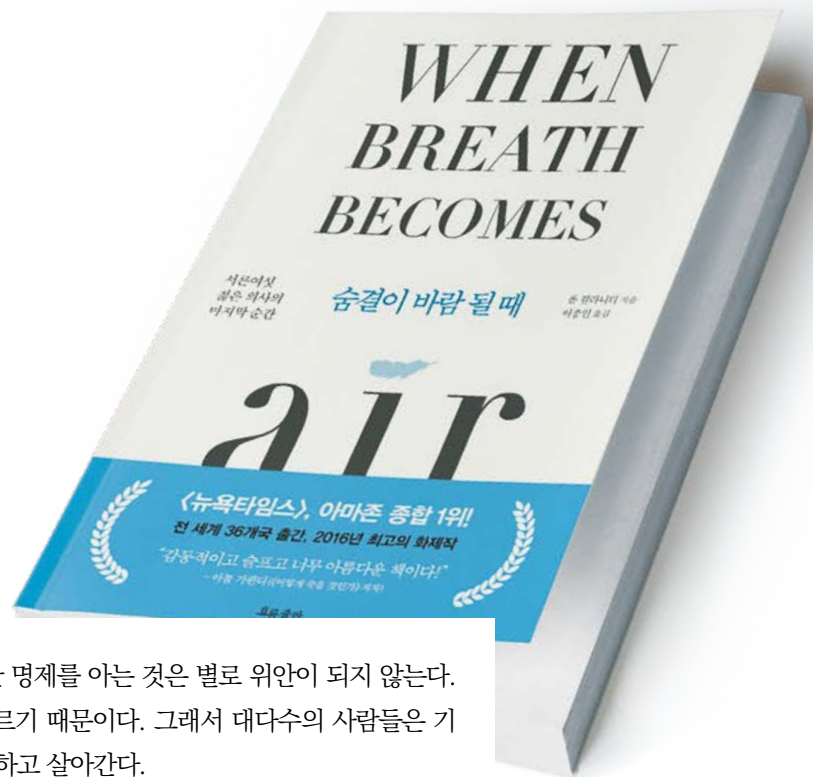
나 역시 내 마음과 함께 다니며 내 마음에 집중하고, 내 마음이 자유로워짐을 느꼈다. 궁금한 것은 묻고, 맛있는 음식을 음미하며, 시간 제약 없이 충분히 시간을 즐겼다. 온전한 나만의 시간을 통해 돌아본 나는 여전히 호기심 많고,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생선 담는 나무 상자를 다듬는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고, 어선에 높이 휘날리는 깃발에 대해 선원과 녀석 좋게 이야기하는 나는 낯선 곳에서 만난 또다른 나였다. 나는 하루 동안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여행을 했다. 앞으로 나는 매달 가족에게 월차를 내고 ‘혼자 여행’을 가려고 한다. 나이 들수록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독립심’을 키워야 한데, 혼자 여행만큼 좋은 연습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친구 하나 없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외롭고 청승맞아 보이지 않을까, 심심하고 쓸쓸하지 않을까… 부질없다. 타인의 시선과 내 안의 두려움을 모두 버리고 떠날 것이다. 내 마음만 가지고 가도 충분하니까. 좀 더 빨리 알았어도 좋았을 것을. 

서른여섯, 폐암에 걸린 신경외과 의사가 한 일

‘숨결이 바람 될 때’

서평_김아영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이 당연한 명제를 아는 것은 별로 위안이 되지 않는다. ‘내’가 언제 죽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대 수명을 자신의 수명으로 예측하고 살아간다.

학교를 다니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 등 인생의 굵직한 사건들도 대부분 미래가 한참 남아 있다고 상정한 상태에서 결정한다. 그렇기에 불쑥 나타난 죽음의 그림자를 목도했을 때의 절망감은 이루 형용할 수 없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다가온 죽음은, 이제껏 쌓아온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당연한 듯 미래를 꿈꾸며 산다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 알려준다.

우리는 신체 없이 살 수 없다. 몸은 ‘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이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알뜰살뜰 챙기며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건강할 땐 건강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말은 아무리 외워두어도 정말 건강할 땐 머릿속에서 감쪽같이 사라진다. 그래서 방문 목적이 검진이든 치료이든 병원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움츠러든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자신이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는 탓이리라.

의사와 환자의 경계에서

신경외과 의사, 폴 칼라니티가 쓴 책 〈숨결이 바람이 될 때〉에 언급된 환자들

의 사례를 보면 한 가지 서글픈 사실이 명확히 떠오른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환자는 의사의 진단을 듣고서야 자신의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름도 난해한 병명과 그보다 더 난해한 치료 과정을 듣고 나면 환자는 생전 처음 오는 영토에 똑 떨어진 이방인이 되고 만다. 생전 처음 보는 의사에게 오롯이 내 몸을 맡기고 그의 전문적인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이, 몸의 주인인 ‘나’를 한없이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가 기대 이상으로 소명의식이 투철하기를 바란다. 최선을 다할 것을 알면서도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생략할 수가 없다.

의사도 사람이다. 환자 입장에서 그래서 편안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론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다. 하필 내 진료를 볼 때 실수하면 어쩌지? 유난히 피곤해보이시는데 지금 날 제대로 진찰하고 있는 걸까? 그렇다. 의사가 아무리 소명의식을 갖추었다하더라도 결국 의사도 직업 아닌가. 과로에 시달릴 것이고 일찍 퇴근하기를 바랄 것이다. 냉정히 말해서 자신을 기다리는 환자는 모두 일감일 테니까.

〈숨결이 바람이 될 때〉는 그러한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한 예시로 폴과 대학원 동기인 마리는 몇 주 동안 쪽잠을 자며 야간 근무를 한 뒤, 아홉 시간이 드는 수술에 보조로 참여하는데 내심 ‘너무 피곤해. 하느님 제발, 전이가 있게 해주세요.’ 바랐다고 한다. 암이 광범위하게 전이되었다면 수술이 무용지물이라서 취소되기 때문이다. 마리는 자신의 바라던 결과가 나오자 처음엔 안도했지만, 곧이어 깊은 피로움과 수치심에 시달렸다. 그리고 수술실을 뛰쳐나와 울다가 폴을 만나 위와 같은 일을 고백했다.

의사는 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분투’

이 책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결국 ‘분투’다. 환자가 병과 맞서는 것도 분투이고, 의사가 현실적인 조건에 맞서 소명을 지키는 것도 분투이다. 실제로 문학 소양이 상당한 작가는 책 속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적어놓았다. ‘몇 년 전, 나는 다윈과 니체가 한 가지 사실에 동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물을 규정짓는 특징은 생존을 향한 분투라는 것이다. 삶을 이와 다르게 설명하는 건 줄무

늬 없는 호랑이를 그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의사가 환자의 고통을 속속들이 다 알 순 없더라도 의사도 분명 환자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 단순히 그것이 업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환자에게 당신의 싸움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폴은 의사의 의무를 ‘죽음을 늦추거나 환자에게 예전의 삶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삶이 무너져버린 환자와 그 가족을 가슴에 품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 자신들이 처한 실존적 상황을 마주보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돕는 것’이라 적었다.

그는 의사가 환자를 대신해서 병과 싸워주고 고통을 대신 겪어 줄 수 없다는 것을 주지하고 있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싸움이 있다. 그래서 폴에게 병원은 직장 그 이상이었고 환자는 일감으로 치환되지 않았다. 그는 첫 번째 환자의 죽음을 겪고 나서 ‘환자를 서류처럼 대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서류를 환자처럼 대하기로’ 결심한다. 아무리 위중한 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그 병명이 곧 그 환자의 이름을 대신하는 건 아니다. 병은 우리의 인생 계획을 망가뜨릴 뿐이지 인생 자체를 앗아갈 순 없다. 폴은 신경외과 레지던트로서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자신이 폐암에 걸린 사실을 확인한다. 그는 ‘의사에서 환자로, 주체에서 객체로, 주어에서 직접 목적어’로 옮겨갔다. 그렇다고 후자의 삶이 전자의 삶보다 가치 없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통제할 수 없을 때에도 끝까지 기권을 외치지 않았다. 그의 말대로라면 ‘죽기 전까지는 죽은 것이 아니’었다.

카플란 마이어의 생존분석 곡선은 시간 경과에 따른 생존 환자의 수를 보여주는 통계이다. 그곳에는 오로지 숫자만 있다. 하지만 폴은 환자에게 힘을 주는 건 명확한 숫자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이라고 믿었다. 실제로 환자가 된 후에도 그는 생존 곡선의 무용함을 깨닫는다. 컴퓨터의 삶이라면 모를까 인생을 모조리 숫자로 설명할 순 없다.

그래서 서류로 남은 수많은 환자들의 데이터보다 폴이라는 한 사람의 구체적인 경험을 담은 이 글이 우리의 삶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준다. 폴은 이 책에서 숫자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로 희망을 말하고 있다. 이 책이야말로 그 어떠한 통계보다도 남겨진 사람들에게 살아갈 용기를 전해줄 것이다. 

의료원 / 순천향대 / 의대동창회

이신근 쌤밸리그룹 회장에 명예경영학 박사 수여



순천향대학교가 10월 14일 국내 임대주택 사업 발전의 선구자인 쌤밸리그룹 이신근 회장에게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사업의 발전을 이끌고 주거 안정과 고용 창출에 기여해왔다. 서교일 이사장은 "존경하는 이신근 회장님께 우리 대학 최고의 영예인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돼 기쁘다"며 "순천향 구성원 모두 박사님의 꿈과 도전, 그리고 정성과 실천의 미덕을 오래 기억하며 그 뜻을 기리고 따르고자 한다"고 전했다.

온·오프라인 '대학 홍보대사' 40명 임명장 수여



순천향대학교는 2021학년도 신규 선발된 대학 홍보대사 4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순천향대는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통해 재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학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오프라인 홍보대사 '알리미'와 온라인 홍보대사 '향·ON', 그리고 유튜브 전문 홍보대사 '순천향 유튜브스타' 등의 대학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2학기부터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홍보 강화를 위해 '학생 서포터즈 순천향 유튜브스타'를 신설했다.

모잠비크, 에콰도르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콘퍼런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원장 서유성)은 지난 9월 28일과 10월 1일 각각 에콰도르 시정부와 모잠비크 보건부를 대상으로 한국의 경제발전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경제발전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최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으로 한국의 발전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맞춤형인 정책제언을 제공하는 지식기반 개발협력 사업이다. 중앙의료원은 양 국가에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비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각 국가에 맞춤형인 정책을 제안했다. 모잠비크는 기존 여러 국제기구와 함께 국가적 방역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장기적인 전략 수립을 위한 의료기관별 '감염병 대응 지침' 개발하도록 제안했다. 에콰도르의 경우, 코로나 19 대응에 있어 한국의 ICT 기술을 활용하여 방역 체계 마련 지침을 제안했다.

가상 캠퍼서서 아바타로 만난 학생들, 메타버스 수업 본격 등장



순천향대는 이번 학기부터 정규 교양강좌인 '피닉스 열린강좌'를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운영하고 있다. '피닉스 열린강좌'는 각 계각층의 저명인사를 초청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생관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한 교양강좌(2학점)다. 15주 수업 중 4주 수업을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메타버스 수업은 가상의 대학 캠퍼스 공간에서 특별초빙된 강사와 학생들이 아바타(사이버 공간에서 사용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형태로 모여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23일에는 이설아 KBS 기상캐스터가 메타버스 가상공간에 아바타로 등장해 '기상캐스터의 날씨 이야기'라는 주제의 강의를 진행했다. 학생들 역시 아바타로 등장에 수업을 들었다.

"THE 세계대학평가 임상보건분야 국내 13위"



순천향대가 '2022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임상보건분야 국내 13위를 기록했다.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가 매년 실시하는 세계대학 평가는 △논문 피인용도(35%) △교육여건(27.5%) △연구실적(27.5%) △국제화 수준(7.5%) △산업체 연구 수입(2.5%) 등을 반영한다. 순천향대는 임상보건분야에서 국내 13위에 올랐고, 생명과학·자연과학분야에선 각각 16위와 27위를 기록했다. 김승우 총장은 "지난 2022 THE 세계대학평가 종합순위에서 국내 28위, 세계 1201위권에 신규 진입한 성과에 이어 전공별 순위에도 우수한 평가를 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몽골 의료진에게 한국 선진 의료를 교육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원장 서유성)은 몽골 보건부 보건개발센터의 요청을 받아 몽골 의료인력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몽골 의료인력 대상 교육 프로그램은 몽골 제1,2 종합병원과 국립 부상병원, 국립암센터 등 총 7개 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7일간 진행했다. 교육팀은 몽골 현지 수요에 맞추어 모자보건팀과 외과팀으로 구성되었다. 모자보건팀은 태아기형, 고위험임신, 산전상담, 산생아 관리 등의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외과팀은 심근경색 진단, 사이버나이프 치료, 뇌 내시경 수술, 위장관 역류질환, 고도비만 치료 등을 주제로 현지 세미나를 개최하고, 실시간 현장교육을 제공했다. 교육에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소속 산부인과 최규연 교수, 소아청소년과 한원호 교수, 가정의학과 유병국 교수, 신경외과 조성진 교수, 외과 김상현 교수가 참여했다.

서울병원

한원호 교수, 2021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한원호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9월 10일, '2021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 '제31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논문은 한국분석과학회지(scopus)에 발표한 '동결건조법이 모유의 당화단백체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 of freeze-drying on the glycoproteomic profiles of human milk)'이다. 신생아의 신경 발달과 연관된 당화단백체가 동

결건조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공식행사이다.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권순호 신장내과 교수,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선정



권순호 신장내과 교수가 한국 보건 의료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2021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보건 의료 연구원이 주관하는 보건의료 기술 연구개발사업(R&D), 국가 지원 임상 연구 사업이다. 권순호 교수가 총괄 책임을 맡은 '노인 말기 신부전환자대상 주 2회/3회 혈

액투석 비교 연구'는 투석을 새롭게 시작하는 노인환자들을 대상으로 주 2회, 3회 투석 시작 후 임상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이다. 전국 18개 기관이 연구에 참여하고 기간은 5년이며, 총 연구비는 25억원을 지원 받는다.



김현숙 류마티스내과 교수,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선정



김현숙 류마티스내과 교수가 2021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중 의료기술 비교평가 후향 연구(단독과제)에 선정됐다. 연구 과제는 '류마티스 관절염 연관 간질성 폐질환 환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의 영향'이며 2023년 5월까지 연구를 진행한다. 10개 기관이 참여하며 김현숙 관절류마티스내과 교수와 어수택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가 공동

주관연구자이다. 이경언 관절류마티스내과 교수와 구소미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교수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한다.

최태윤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최태윤 진단검사의학과 교수가 9월 17일, 제4회 세계환자안전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최태윤 교수는 순천향대서울병원 Q실장, 의료기관인증원 조사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환자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제도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2017년부터는 순천향대의대 교육 과정에 '인간사랑 환자사랑 1~9'

시리즈 수업을 도입하고, 의학과 3학년 1학기 임상 실습 때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추구하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향상' 교육을 정착시켜 환자 안전 문화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했다.

환자안전주간행사 개최

서울병원(병원장 서유성)은 9월 17일 세계환자안전의 날을 맞아, 13일부터 17일까지 환자안전주간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환자안전 UCC경연대회와 환자안전캠페인, 환자안전 리더십 라운딩 등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 교직원들에게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환자안전 UCC경연은 외래간호팀이 대상에 선정돼 상장과 3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응급실, 우수상은 본관8병동이 수상했다. 환자안전캠페인은 교직원과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환자안전에 대한 O,X 퀴즈와 환자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답례품을 증정했다.

부천병원



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 4주기 연속 우수내시경실 인증 획득

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4주기 연속으로 획득했다. ‘우수내시경실 인증’은 내시경 시술의 질적인 향상과 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시행하는 질 관리 프로그램이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우수내시경실 재인증’을 획득해 내시경 검사의 질과 환자 안전 보장 수준이 높음을 인정받았다. 4주기 인증 유효 기간은 2021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3년간이다.



‘2021 APEC 규제조화센터-순천향대 의료기기 포럼’ 성공적 마무리

부천병원과 APEC 규제조화센터가 공동 주최한 ‘2021 APEC 규제조화센터-순천향대 의료기기 포럼(2021 AHC-SCH Medical Device Forum)’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포럼은 10월 15일과 22일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21개국 120명이 참가했다. “빠르게 발전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과제, ‘코로나19 위기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역할’ 등을 주제로 대만, 싱가포르, 미국, 인도, 독일, 사우디 등 다양한 국적의 연사들이 참가해 각국의 의료기기 정책, 규제 화합 활동 관련 경험을 공유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포럼은 APEC 회원국 외에도 브라질, 인도,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관계자 등이 참여해 더욱 풍성한 토론이 진행됐다.



김보연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제13차 아시아 당뇨병 국제학술대회 우수연제상 수상

부천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보연 교수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제13차 아시아 당뇨병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상’을 수상했다. 본 학술대회는 아시아 의사들이 모여 당뇨병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학술대회로, 김교수는 ‘한국인 2형 당뇨병 환자에서 혈압 관리 정도와 심혈관-신장 질환, 사망률의 연관성(Blood pressure levels and cardio-renal events and all-cause mortality in Korean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에 대해 발표해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범태 신경외과 교수, 자랑스런 신경외과 의사상 수상 및 대한신경외과학회장 당선

부천병원 신경외과 김범태 교수가 제61차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자랑스런 신경외과 의사상’을 수상한 데 이어 대한신경외과 이사회에서 ‘제62대 대한신경외과학회장’에 당선됐다. ‘자랑스런 신경외과 의사상’은 국민과 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신경외과 의사에게 대한신경외과학연구재단이 수여하는 상이다. 김 교수는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상금 1,000만 원을 대한신경외과학관 건립기금으로 기부했다. 한편, 14일 대한신경외과 이사회에서 진행된 온라인 투표에서 제62대 대한신경외과학회장으로 당선된 김 교수는 2022년 11월부터 1년간 회장직을 맡아 학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예정이다.

천안병원



이성열 교수, 대한피부과학회 스티펠 학술상 수상

천안병원 피부과 이성열 교수가 대한피부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스티펠 학술상’을 수상했다. 스티펠 학술상은 피부과학의 연구 활동을 고취시키기 위해 피부전문 제약회사 한국스티펠이 후원하고 대한피부과학회가 수여하는 상이다. 대학병원의 50세 이상 피부과 교수 가운데 연구 실적이 우수하고, 학회 기여도가 큰 교수 2인을 선정해 매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수여하고 있다. 이성열 교수는 백반증, 건선 등 난치성 피부질환 치료와 연구에 집중해오고 있다. 20여 년 전부터는 대학병원 최초로 대상포진클리닉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관련 환자ケア와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코로나19 예방 위한 퀴즈이벤트 열어

천안병원이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환자대상 퀴즈 이벤트를 열었다. 감염관리실 주관으로 열린 퀴즈이벤트는 환자들이 손씻말의 OX 문제를 맞추는 것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생활예절들을 다뤘다. ‘올바른 손씻기’, ‘생활 속 방역수칙’,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등에 대한 즉석 교육도 겸한 이벤트에 참여한 환자들에게는 손소독제, 마스크, 살균티슈 등의 선물도 제공됐다.



국가결핵관리 평가대회 우수의료기관상 수상

천안병원이 ‘2021년 민간-공공협력 국가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우수의료기관상을 수상했다.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와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열린 평가대회는 결핵예방 및 관리 실적을 공유하는 자리로 전국 180여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천안병원은 ▲다제 내성 결핵환자 관리 수, ▲신약신청 건수, ▲결핵환자 신환자 신고건수 등 여러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충남·세종권역을 대표해 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재생·재건 의학센터 개소

천안병원이 의과대학 2층에 재생·재건 의학센터를 새로 조성하고 개소식을 열었다. 현판식을 겸한 개소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문수 병원장, 백무준 연구부원장, 권세원 센터장 등 주요 보직자와 정형외과 정기진 교수, 피부과 김정은 교수, 치과 최우성 교수 등 센터 참여 교수 및 실무진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개소한 재생·재건 의학센터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관으로 순천향대천안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단국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2021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됐다. 센터가 담당할 과업은 ‘재생·재건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이며, ▲국제 수준의 재생·재건 의료기기 실증 인프라 구축 ▲3D 바이오 프린팅 기반 제품화 시제품 제작 ▲맞춤형 재생·재건 의료 실증 지원 ▲국제규격 기반 인허가 지원 ▲핵심기술 사업 고도화 ▲각종 실증 평가 지원 등이다.

구미병원



순천향대 구미병원 & 매일신문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의료비 지원

구미병원은 지난해 12월 초에 계단에서 넘어져 경추골절 및 사지마비 등으로 51병동에 입원 치료중인 '김태진(27세)' 환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게 되었으며, 관련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하던 중 가정복지회를 통하여 매일신문에 (8/24일자 10면 보도)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되었다. 지면에 보도 된지 1주일 만에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성금이 약 3,200만원이 모여졌으며, 특히 순천향 구미병원 교직원들을 비롯한 축구동아리 블루스카이(단장 양승부), 경북병원 간호사회(회장 김영실), 고객지원팀, 재활치료팀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김영실 경북병원간호사회 회장(구미병원 간호부장)은 "젊은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엄청난 고통을 당한 사연을 접하게 되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으나, 코로나19 확산과 경제적 불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네 감사드리며, 아직도 재활치료중인 김태진 환자에게 우리의 따뜻한 온정이 전달되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결핵 환자 재택의료 시범 기관 선정

구미병원은 10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 사업'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결핵 및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재택 환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가정에서도 교육과 상담, 환자 상태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등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10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이며, 구미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25곳, 종합병원 48곳, 병원급 4곳 등 총 77곳의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미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와 결핵관리전담 간호사는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질환의 특성과 치료과정 등을 설명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복약지도 등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재택 의료서비스와 체계적인 결핵관리방법을 제공한다. 한편, 구미병원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와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아 폐질환 치료를 잘하는 병원으로 입증됐다.



변기만 후원자 '취약계층 의료비 200만원 기탁'

9월 6일 변기만(80세/대구시) 후원자가 취약계층 환자를 위해 사용해 달라며, 후원금 200만원을 기부해 병원 교직원들과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전했다. 후원자께서는 "순천향병원 소식지를 통해 평소 순천향병원이 취약계층 환자들을 많이 돕는 것을 알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의 치료비와 수술비로 지원하는 '순천향사회사업기금'과 함께 생활고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려는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임한혁 병원장은 "우리 순천향병원은 인간사랑 실천을 목표로 세워진 병원이다"며 "후원자님의 고귀한 뜻이 귀감이 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미제일MJF라이온스클럽, 의료비 후원금 기탁

구미제일MJF라이온스클럽(회장 권정호)은 올해 5월 취약계층 환자를 위한 의료비 후원금 100만원을 기탁한데 이어 지난 10월 12일 의료비후원금 100만원을 우리병원에 기탁하였다. 임한혁 병원장, 권정호 구미제일MJF라이온스클럽회장 등 주요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병원 병원장실에서 행복나눔을 위한 의료비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구미제일MJF라이온스클럽은 2004년 우리병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합동의료봉사 등 매년 꾸준히 후원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비 후원금은 우리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해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구미제일MJF라이온스클럽은 1992년 9월 23일 창립하게 되었으며, 시각장애인협회 흰지팡이 후원, 장학금 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봉사를 하고 있으며, 스리랑카와 필리핀에 초등학교를 건립하고 라오스에 우물파기 봉사를 하는 등 해외봉사를 겸하고 있다.

‘인간사랑 정신과 의료의 혁신으로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실현합니다’

SCH 서울병원

www.schmc.ac.kr/
02-709-9114



SCH 부천병원

www.schmc.ac.kr/bucheon
032-621-5114



순천향대학교

www.sch.ac.kr



BUCHEON
SEOUL

ASAN
CHEONAN

GUMI



SCH 천안병원

www.schmc.ac.kr/cheonan
041-570-2114

SCH 구미병원

www.schmc.ac.kr/gumi
054-468-9114



